

SBS magazine

www.sbs.co.kr



특집 500회 맞은 〈그것이 알고 싶다〉

커버스토리 정진영

나누는 방송 2004 기아체험 24시간

방송의 현장 〈웃찾사〉 1주년 특집

채널고정 〈장길산〉, 활빈당의 소두령들

07 + 2004 + July + Vol.152

6



16



24



30



6

특집 / 500회 맞은 〈그것이 알고 싶다〉
두려움없이, 진실을 향해 전진하라!

16

〈웃음을 찾는 사람들〉 방송 1주년
“웃찾사, 코미디 왕국의 명예 다시 찾겠다”

20

초점 / 〈파리의 연인〉 인기 비결
그들의 인기, 알고 보니 이유 있었네

24

채널고정 / 〈장길산〉의 분신, 활빈당 소두령들
“내가 곧 장길산이다!”

30

특별기획 〈2004 기아체험 24시간〉
우리의 관심,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33

〈TV 아름다운 가게〉
“작은 사랑이 모인 곳, TV 장터로 오세요”

36

커버스토리 / 〈그것이 알고 싶다〉 정진영
내가 걸어가는 곳, 거기 나의 길이 있었다

40

스포츠라이트 / 탤런트 한지혜
스무살, 세상을 물들이다

42

유망주 / 〈작은 아씨들〉의 이윤미 & 후니훈
여름처럼 상큼하게, 여름처럼 뜨겁게

44

러브FM 〈박용하의 10!10!클럽〉
“라디오에 실어보낸 꿈, 텐텐지기로 이루어졌죠”

46

이주형의 문화코드
슈렉, 컬러 코드를 뒤집다

48

김수현의 공연산책
나팔꽃이 피었네, 작게 낮게 느리게...

50

은지향의 음악풍경
은PD, 80년대의 동아기회를 추억하다

52

아주 특별한 여행
한적한 여름 피서지를 찾아서

55

SBS 미디어넷 하이라이트
골프채널 · 스포츠채널 · 드라마플러스

56

SBS 스포츠패널
2004년 여름, 아시아가 축구로 뜨거워진다!

58

클릭! 인터넷
SBSi & 727 멤버십 소식

62

TV & 라디오 편성표
7월의 SBS 주간 편성

66

7월의 SBS 영화
영화특급

월간 〈SBS 매거진〉 2004년 7월호(통권 152호)

· 발행처 | 주식회사 SBS(서울시 양천구 목동 920번지 · 대표전화 02-2061-0006) · 발행일 | 2004년 7월 1일 · 발행 및 편집인 | 송도균 · 주간 | 김재백 · 부주간 | 배성례
· 기획 | 최애라 · 신선화 · 사진 | 서창식 · 조광희 · 김연식 · 편집 및 제작 | 보빙사(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94-13 · 전화 02-548-0301) · 출력 | G에드 · 인쇄 | 두림인쇄(031-907-0871)
· 〈SBS 매거진〉은 인터넷(www.sbs.co.kr)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SBS 매거진〉에 실린 기사와 사진은 주식회사 SBS의 동의없이 옮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출 / 신용환 · 윤성만 · 장경수 · 이덕건 · 박진홍 · 박상욱
전행 / 정진영
방송 / 매주 토요일 밤 10시 55분

두려움없이, 진실을 향해 전진하라!

500회 맞은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을 밀도있게 풀어나가려는 노력으로 십여 년이 넘도록 애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이다. 역사 속에 묻혀졌던 사건이나 주위에서 잊혀질 뻔한 일들에 호기심의 촉수를 들이대고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오늘도 현장 깊숙이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이다. 2004년 7월 17일, <그것이 알고 싶다>가 500회 방송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는 날이다.

전혀 새로운 다큐멘터리 탄생 인간의 호기심은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나 구약성경에 나오는 욕의 아내에서처럼 재앙이나 불행을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의 원천인 양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호기심은 가장 인간다운 성정일 뿐 아니라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지적 호기심으로 연결되는 경우 새로운 이론이나 사상의 모태가 되기도 한다.

1992년 3월 31일은 방송 역사에 한 장을 장식할 새로운 형식의 교양 프로그램이 탄생한 날이다. 미스터리 다큐멘터리를 표방하고 첫 전파를 탄〈그것이 알고 싶다〉는 첫 회부터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형호 군 유괴사건, 살해범의 목소리’가 방송되자마자 시청자들은 수백통의 제보 전화를 해왔고 시청자들의 잇따른 요청에 방송 닷새 만에 전격 재방송을 했을 만큼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왔다.

13년 장수의 저력과 비결 ‘미스터리 다큐멘터리’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애당초 〈그것이 알고 싶다〉는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주요 소재로 삼아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언론에서 스쳐 지나갔던 사건이나 의혹만 남긴 채 풀리지 않고 있는 사실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주된 아이템이었다.

그러나 아직 신생 방송사로서의 입지가 굳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굵직한 소재들은 불방(不放)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잊혀진 6.25 관련 비화 가운데 치안대가 주민들을 살해해 파문은 ‘금정굴 사태’나 3개월 가까이 준비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은 열악한 제작 여건과 관련 기관의 외압에 방송을 포기한 대표적인 사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일 경우 더욱 그러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종종 제작진의 기를 꺾기도 했지만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방송, 여론 형성에 어

느 정도 기여했을 때 맞춘 성취감이 오늘날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생존하게 만든 저력이 아닐까 싶다.

‘인간의 조건’ (1992. 11. 8~1993. 1. 31)이란 제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방송되었던 정신질환자 수용 실태나 알콜중독 문제의 경우 사회적인 이슈로까지 부각되었고, 재야인사 장준하의 죽음을 2회에 걸쳐 다룬 ‘암살인가? 실족사인가?’ (1993. 3. 14)와 ‘거사와 암살’ (1993. 3. 28)은 의문사한 이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후에 의문사진상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낳는 촉매제가 되기도 했다.

때로는 신문 사회면 귀퉁이에 등장했다 자취를 감춘 사건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수면 위로 끌어올려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거나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소외계층으로 시선을 이끌다 무엇보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회의 소수 집단(Minority)에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의 키잡이들. 사진 왼쪽부터 장경수, 박상욱, 신용환, 박진홍, 이덕건 프로듀서, 윤성만 PD는 취재중이어서 사진에는 빠져있다.



연출 / 신용환 · 윤성만 · 장영수 · 이덕전 · 박진홍 · 박상욱

진행 / 정진영

방송 / 매주 토요일 밤 10시 55분

평가받을 만하다. 그 부분이 강점이자 영향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편견을 한 꺼풀 벗겨내었던 경우, 그들이 죽음보다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사실에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동성애자들에 대한 접근, 학대받는 아동이나 구타당하는 아내, 윤락여성과 미혼모, 사형수, 부랑자 등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부단한 관심을 유도한 것



등도 그러한 힘에 한 몫 했다.

그 가운데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만들어져 더욱 화제가 되었던 '6년간의 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 (1992. 4. 28)은 방송 후 수사전담팀이 생기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특히 <살인의 추억>을 제작한 영화사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취재자료를 참고로 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그만큼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자료가 치밀하고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셈이다.

여기에는 첫 회부터 지금까지 매회 프로그램 제작 자료 책자를 발간해 온 제작

진의 노력이 숨어있다. 기획안부터 대본, 관련자료, 촬영일정은 물론 심의보고서와 시청자 의견 등이 꼼꼼히 수록되어 자체 모니터링과 향후 아이템 선정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오락적으로 다루어 자칫 흥미위주로 사건이 포장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져 오기도 했다. 이것은 소재의 폭과 깊이가 다양한 탓에 기인하기도 한다. 성(性)이나 전생(前生), 기(氣), 미확인 비행물체(UFO), 초능력 등 신비주의적, 초현실적 소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비판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다소 자극적일 수 있는 소재는 얼마 전부터 <백만불 미스터리>로 아이템을 분산했고, 희귀병이나 불치병을 앓는 환우들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에서 집중해서 다루게 되었다.

결코 논쟁을 피하지 않겠다 아이템을 분산한 결과 최근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슈에 더욱 깊이 있게 접근해 방송의 질과



현재 여섯 명의 PD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작하고 있다. 관심 분야가 다르고 취재원도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 분위기를 더욱 역동적으로 만든다.

밀도를 높이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 제목의 변천에 따라 시각을 조정해왔다.

처음 '미스터리 다큐멘터리'를 표방했을 때는 미해결 사건이나 신비스러운 현상에도 관심을 쏟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 뒤 <문성근의 다큐 세상 그것이 알고 싶다>나 현재의 <정진영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르러서는 사회적 이슈를 정면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에 방송되었던 '총을 들 수 없는 양심,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 (2004. 6. 12)의 경우 주제가 주제인 만큼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입장을 첨예하게 세운 시청자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게시판에 뜨겁게 달궜다. 제작진조차 그 정도로 의견이 분분할 줄은 몰랐다. 네티즌들은 100페이지가 넘도록 감정적으로 대립해 자신의 주장과 방송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로 게시판을

떠날 줄 몰랐다.

시청자들의 반응 못지않게 <그것이 알고 싶다> 자체 회의도 가혹하리 만큼 신랄하게 진행되곤 해서 제작진 스스로를 긴장시키고 다음 방송에 만반의 대비를 갖추게 한다. 얼마나 가차없이 진행되는 지 회의 한 토막을 엿보았다.

사회 : 신언훈 책임프로듀서

참가자 : 신용환, 장경수, 이덕건, 박상욱, 박진홍 프로듀서, 신진주 작가 등

주제 : 지난주 방송된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

(이덕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얘기를 제대로, 자세히 들어본 기회였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겐 공격이 될 수도 있다. 균형 잡으려는 액션만 취한 것처럼 보인 게 아쉽다."

(박진홍) "깔끔했지만 집중도가 떨어진 느낌이었다. 여호와 의 증인 말고 다른 근거로 병역거부한 사람들에게 대한 부분이 미흡하게 다뤄졌다."

(신용환) "소수자의 인권처럼 병역 거부자 얘기도 아이টে으로서 다룰 만하다는 것을 느꼈다. 일반 네티즌이나 군필자들을 의식해서 못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사회도 다양한 가치에 주목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해줬다."

(장경수) "보수적인 입장에 대한 인터뷰는 비논리적으로 비추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례 위주의 진행이어서 이슈 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듯했다. 논 의 중심에 있는 뜨거운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적 정보가 방송 중간에 노출된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신진주) "그동안 섣뵁 못했던 아이টে이어서 더욱 주목해서 보았다. 다만 폐쇄공포증과 양심적 병역 거부와의 상관 관계가 의심스러워 감정이입이 잘 안됐다."

건강한 호기심을 진실탐구의 도구로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매번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입장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담아내고자 애쓰고 있는 중이다. 네티즌이나 시청자들의 감정적인 반응이 제작진에겐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자유롭고자 한다. 그래야만 질 높은 방송이 가능할테니 말이다.

오는 7월 17일이면 500 회를 맞이하

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거는 기대가 남다른 것도 이런 제작진의 고군분투와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반응이 상승작용을 하는 까닭에서다. 늘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따뜻하게 비추고 외면당하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프로그램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진실을 밝히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삶의 개선과 변화를 가져오는 건강한 방송이 될 것이라 믿는다. 호기심을 건강한 도구로 삼아 진실 탐구와 대안 제시라는 상품을 생산해내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우리 모두가 던져준 숙제이다.

글 / 박경희_자유기고가 · 사진 / <SBS매거진> 사진팀

<그것이 알고 싶다>가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장수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진행자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배우 문성근, 전 국회의원 박원홍, 변호사 오세훈 등이 그 빛나는 이름들이다.



연출 / 신용환 · 윤성만 · 장영수 · 이덕전 · 박진홍 · 박상욱

진행 / 정진영

방송 / 매주 토요일 밤 10시 55분

Interview |

신언훈 CP(책임 프로듀서)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설득력 있고 카리스마 있고 신뢰성 있는 진행자를 통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신언훈 CP가 밝히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탄생 배경이다.

아이템 자체나 구성의 질, 밀도 못지않게 진행자의 위력을 실감한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이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문성근이다. 방송 초창기부터 2002년 5월까지 진행을 맡아 - 물론 그 사이 박원홍 전 국회의원과 오세훈 변호사가 한동안 진행하기도 했다 - <그것이 알고 싶다>의 독특하고 고유한 포맷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현재 진행을 맡고 있는 정진영의 경우 국문과 출신답게 대본의 문구를 전달하기 쉬운 문장으로 고치는 등 자신만의 감각을 창조해내고 있다고 신언훈 CP는 귀띔한다.

“현재 총 여섯 명의 프로듀서가 번갈아가며 제작을 맡아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프로듀서마다 관심 분야와 취재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 분위기를 더욱 역동적으로 만드는 힘이 되고 있죠. 요즘처럼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갈라지는 경우 제작진도 각기 다양한 입장과 시각에 서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중재를 자청해 다른 면도 볼 수 있도록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아이템이 정해지면 담당 프로듀서의 독자적인 제작에 맡기고 일방적인 지시나 전달은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아마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더욱 융기있고 생동감 있게 만드는 바탕엔 서로의 이러한 신뢰와 조율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역사 속에 묻혀졌던 사건이나 잊혀질 뻔했던 일들에 호기심의 촉수를 들이댄채 몸사리지 않고 현장 깊숙이 뛰어다니는 사람들, 오로지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일념으로 프로그램을 지켜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노력은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PD와 작가, VJ 등 좀처럼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그것이 알고 싶다> 식구들이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힘차게 화이팅을 외쳐보았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그것이 알고 싶다> 역대 수상기록



- 1992년 제19회 한국방송대상 작가상 - 송지나 작가
- 1993년 제29회 백상예술대상 비극부문상
방송위원회 선정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10월)
- '불가사의의세계:무속과 초능력' (연출 강영권)
- 1994년 제21회 한국방송대상 우수작품상 TV 교양부문
- '서울xx9716 그랜저' (연출 이영돈)
- 1998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11월)
- '국군포로 장무환, 50일간의 북한 탈출기' (연출 박종성)
- 1999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11월)
- '구두쇠 할머니들의 이유있는 반란' (연출 박종성)
제32회 휴스턴페스티벌 다큐멘터리 부문 은상 / 제26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부문 특별상 / '99 방송위원회 대상
- '국군포로 장무환, 50일 간의 북한 탈출기' (연출 박종성)
제3회 가족문화상 - IMF 1년, 다섯 가족의 겨울나기 (연출 신용환)
한국여성단체연합 선정 평등인권방송 디딤돌상
- '이것이 성희롱이다' (이윤민)
제2회 방송프로그램 21상 공동체부문
- '침묵의 굴레-농아부부의 건청자녀 교육' (연출 박종성)
여성특별위원회 선정 남녀평등방송상 교양부문 우수상
- '외로운 선택, 미혼모라는 이름의 엄마들' (연출 박두선)
- 2000년 제4회 방송프로그램 21상 공동체부문
- '확장 그 후, 외면당한 삶' (연출 박기홍)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으뜸상
- '여성인권 10년, 김부남 사건에서 롯데호텔 성희롱까지' (연출 남상문)
- 2001년 평등인권방송 디딤돌상
- '여성인권 10년, 김부남 사건에서 롯데호텔 성희롱까지'
경실련이 선정한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
- 2002년 제6회 삼성언론상 기획 제작부문
- '수지 김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 (연출 남상문)
평등인권방송 대상 - '노예 성매매의 굴레' (연출 이광훈)
YWCA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여성부문 버금상
- '감추고 싶은 성, 이혼·재혼 여성의 가족만들기' (연출 박기홍)
- 2003년 제36회 휴스턴 페스티벌 다큐멘터리부문 은상
- '당신만이 희망입니다, 린다 김의 마지막 소원' (연출 이광훈)
- 2004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3월)
- '죽음의 섬 실미도, 8.23 군 특수범 난동사건의 진실' (연출 박진홍)
제37회 휴스턴페스티벌 어린이 가족부문 금상
- '외면당한 고통, 장애여성 성폭력' (연출 박진홍)

진실への 의지 앞에 성역은 없었다

- 잊지 못할 <그것이 알고 싶다>



‘암살인가? 실족사인가? - 재야인사 장준하의 죽음’ - 93년 3월 14일

‘거사와 암살 - 재야인사 장준하의 죽음’ - 93년 3월 28일(연출 홍순철 / 작가 조혜경)

75년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의 속칭 약사봉 계곡에서 의문의 실족사를 당했던 <사상계> 발행인이자 재야인사 장준하 씨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쳤던 ‘재야인사 장준하의 죽음’ 편은 방송 이후 시청자들과 언론의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신문들은 방송 후 장준하 씨의 죽음을 놓고 ‘타살의혹’ 등의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으며 ‘장준하 편 충격반응’ 등 각계의 반응과 충격을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다. 또 장준하 씨의 죽음을 놓고 재수사의 여론과 공소시효 만료 등 사회적 논란이 일 정도로 방송이 준 충격파는 대단했다.

제작진은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유족과 18년 전 당시 검사의 취재기자와 주변인물들을 추적 취재하고 과학적인 접근방법으로 사인규명에 나서 높이 평가를 받았다. 이어서 2주 후에는 보다 확실한 자료수집과 보강 취재로 2편을 방송했다.



‘구원의 문인가? 타락의 문인가? - JMS’ - 99년 3월 20일

‘JMS, 그 후’ - 99년 7월 24일(연출 남상문 / 작가 정희선)

JMS 편은 종교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엄청난 사기극의 진상을 파헤친 역작으로 꼽힌다. 방송이 나가자 JMS 측은 전화부대를 동원한 업무 마비는 물론 반론보도 청구,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갖가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는 7월 24일 ‘JMS, 그 후’ 방송에서 정명석 총재와 수 년 동안 성관계를 맺어온 본부 MS의 고백, JMS의 내막을 알고 있는 JMS 고위 간부의 양심선언, 6개월 동안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가 홍콩에 머물고 있는 정명석 총재를 추적해 소개하는 내용을 다뤄 사회적으로 더욱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시청자들은 온갖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JMS의 비리를 재차 폭로한 제작진에게 찬사와 격려를 보내며 사이버 종교집단에 대한 사법당국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에 JMS 개혁위원회 측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정명석 총재로부터 총재직 사임을 받아낸 것은 물론 JMS의 정체성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2002년 11월, 제작진은 또다시 대만사회에서 성추문 피의자로 지목된 JMS 교주 정명석의 실체를 추가로 고발했다.



‘빛나간 믿음-자식 치료를 거부하는 부모’ - 99년 8월 21일(연출 박종성 / 작가 정희선)

율름중앙이라는 소아암에 걸린 한 소녀의 비참한 사연을 담았던 ‘신애의 이야기’는 전파를 타자마자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신애는 종양 제거만 해주면 완치를 90%라는 진단을 받고도 기도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아버지의 광신 탓에 4년 동안이나 방치되었으며, 나이 아홉 살에 몸무게가 20kg에 불과한 앙상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제작진은 취재 도중 어머니로부터 제한적 동의를 받아 신애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으며, 끝내는 아버지 동의도 얻어냈다.

그후 SBS는 8월 29일 특별생방송 <신애를 살립니다>를 통해 신애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광범위하게 모색했다. 이날 접수된 성금은 신애의 치료비로 전달됐다.



‘살인 미스터리-누가 수지김을 죽였나?’ - 2000년 2월 12일

‘여간첩 미스터리 2-수지김 사건의 전모’ - 2001년 11월 24일(연출 남상문 / 작가 정희선)

한 사람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외면당한 한 살해사건의 전모를 15년만에 밝혀내는 쾌거를 일구었다.

2000년 2월 방송에서는 1987년 발생한 홍콩상사원 윤태식 씨의 납북미수 사건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건으로 여간첩으로 몰렸다가 홍콩에서 피살체로 발견된 수지김의 살해 용의자가 다름아닌 그녀의 남편 윤씨라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어 2001년 방송에서 납북미수 사건과 홍콩 살인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남편 윤태식 씨가 유력한 용의자인 근거들과 수지김이 살해되기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친구의 증언 등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가려졌던 취재 내용들이 공개됐다.



‘죽음의 섬, 실미도-8.23 군특수범 난동사건의 진실’ - 2004년 2월 7일

‘죽음의 섬, 실미도Ⅱ’ - 2004년 3월 13일(연출 박진홍 / 작가 신진주)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1971년 8월 23일 일어난 ‘실미도 군특수범 난동사건’에 담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훈련병들의 명예회복과 유해인도를 촉구하는 등 시의성 있는 취재로 다시 한번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죽음의 섬, 실미도 - 8.23 군특수범 난동 사건의 진실’에서 국방부는 처음으로 실미도 부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어 방송된 3월 13일 ‘죽음의 섬, 실미도Ⅱ’에서는 제작진이 훈련병 31명 가운데 취재 중 확보한 29명의 명단을 국방부에 제출하고 이의 확인을 요청했으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실미도 사건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촉구했다. 제작진은 이번 사건이 합리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다.

이제는 진정 국민을 위한 국가이기를...

- '죽음의 섬, 실미도' 편 제작후기



- 1968년, 북한 124군부대의 청와대 습격시도 실패 후, 남쪽에서도 보복작전을 준비했다. 외교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군인이 아닌 사형수와 무기수 31명을 모아 극비리에 고강도 특수훈련을 시켰다. 그런데 침투할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3년 4개월이 흘렀고, 그동안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작전을 준비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됐다.

감방으로 돌려보내지도 못하고 북파 작전을 감행할 명분도 없어진 상태에서 훈련병들을 제거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우연히 이를 알게 된 훈련병들이 반란을 일으켜 기간병들을 사살한 뒤 서울까지 진격하던 중 군의 저지선을 뚫지 못하자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했다...

지난 해 말 개봉되어 1천만 관객 시대를 연 영화 <실미도>의 내용이다. 아이템 선정으로 고민하던 차에 이 영화를 접하고 보니 여러 의문이 일어났다.

사건 당시 생존한 훈련병이 있나? 중앙정보부에서 정말 훈련병들을 제거할 것을 지시했나? 비록 중범죄자들이었다 해도 어떻게 3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사라질 수 있었으며, 33년이 지났는데 왜 유족이 한 명도 없는 걸까? 처음부터 연고가 없는 사람들만 모집했던 것일까? 아니면 가족들이 있어도 전혀 알 수 없을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제작은 이런 단순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취재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집된 훈련병들은 사형이

나 무기형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위해 목숨을 건 도박을 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다. 훈련병들은 전쟁고아, 실항민들이었고 형제 많은 가난한 집의 장손들이었다. 그들에겐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작전에 실패해 설사 죽는다 해도 국가를 위해 의미있게 죽을 수 있는 길임을 믿었던 것이다.

국가가 이들에게 저지른 범법행위는 사기뿐이 아니다. 이들의 시신을 불법으로 유기했고 유족들에게 사망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았으며 33년간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국방부와 군이 여지껏 사실을 숨겨왔던 이유도, 유족들의 유해 인도와 진상 규명 요구를 지금도 묵살하는 이유도 국익이라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한 진리일진대 아직까지 국방부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 유족들의 비원이 하루 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들의 형제들이 유린당한 젊음과 그들이 33년간 흘려왔던 피눈물의 무게가 너무나 크다.

한가지 더. 설사 훈련병들이 실제로 사형수나 무기수였다 해도 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것이다. 아무리 중범죄자라 해도 국가가 제멋대로 처치하고 이용할 권리는 그 어느 국민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 / 박진홍_ '죽음의 섬, 실미도' PD

'죽음의 섬, 실미도' 편을 제작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국방부와 군이 여지껏 사실을 숨겨왔던 것이나 유족들의 유해 인도와 진상 규명 요구를 지금도 묵살하고 있는 것이 모두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저절러졌다는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진 자의 의무

- <그것이 알고 싶다> 500회 특집방송

연출 / 최상재 방송 / 7월 17 밤 10시 55분

최근 우리 사회는 빈부 격차의 급속한 확산으로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통합보다는 대립과 반목이 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통합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으로 정치인, 관료, 부유층 등 사회 지도층의 부패와 무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경유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벌들의 변칙 상속과 증여, 고위직 인사 자제들의 병역비리, 의사, 변호사 등 지도층 인사들의 탈세 등, 사회 지도층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가 사회전체에 냉소와 이기주의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보다 앞서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온 서구사회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진 자의 의무)의 전통을 어떻게 쌓아왔는가를 되돌아보고 사회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 상류층의 의무와 실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례를 찾아보고 이것이 전통으로 이어지지 못한 배경과 원인을 짚어보며 이를 전통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의식, 제도, 문화적 접근 방안을 모색한다.

1. 프롤로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미에 대해 성찰해본다. 교보생명 고 신용호 회장 유족의 상속세 1,300억 자진 납부, 아름다운 재단의 1% 나눔 운동 등 건강한 사회를 위한 노력들과 상류층의 병역 및 납세 의무 기피로 대표되는 도덕적 해이의 양면적인 모습을 비교한다.

2. 노블레스 오블리주

중세 유럽에서 비롯되어 현대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의와 역사를 살핀다.

3. 서구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 사회의 구체적 사례들을 소개한다. 상류층의 일방적인 선의 외에 상류층으로 하여금 의무를 다하게 하는 시민계층의 압력과 요구, 이를 기반으로 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살펴본다.

4.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현대적 의미

기업가의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의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의 기부문화를 소개한다. 석유 독점사업가로 대중의 엄청난 비난을 받던 록펠러 가문이 오늘날 기부와 나눔의 대명사로 불리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부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을 알아본다. 또한 빌 게이츠와 그의 아버지 등 미국의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책임 있는 부자들의 모임' 활동을 소개하면서 세계 최고 갑부들의 '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사회 지도층의 의무'를 직접 들어본다.

5. 우리의 모습

우리 사회 권력자와 부자의 병역기피, 탈세 등 부정적인 초상의 원인과 배경. 상류층 도덕적 해이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본다. 과거 우리의 역사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지만 현대에 전통으로 수립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고 60년대 이후 상류층의 도덕적 해이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한다.

6. 우리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경주 최부자, 고 유일한 박사, 교보생명 고 신용호 회장 등, 서구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보다 오히려 더 전형적인 우리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례를 발굴해 소개한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 진입의 중요한 기로에 있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건강한 통합이 필수적이다.

7. 무엇을 할 것인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아름다운 재단'의 활동 등 우리 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기부문화를 살펴 보고 이를 더욱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의식, 법적, 제도적 보완에 대해 알아본다. 이런 기부 문화의 확산에 기폭제 역할을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해줄 것을 요구한다.

8. 에필로그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았음에도 자원해서 입대한 청년들의 사례 및 최근 전 재산 300억원을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장학회에 기증한 최형규 씨(84)의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무'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돌아본다.

〈웃찾사〉 첫돌맞이 특집방송 현장

‘웃찾사 개그는 아이디어의 개그다’, ‘웃찾사 개그는 조직력의 개그다’, ‘웃찾사 개그는 시청자를 위한 서비스 정신의 개그다’. SBS 간판 코미디 프로인 〈웃찾사〉의 연습실에 나붙은 표어다. 이 짧은 세 문장은 아이디어와 조직력으로 무장한 뒤 시청자들의 마음을 웃음으로 포위하겠다는 ‘웃찾사’ 멤버들의 다짐이며 한 편으로는 ‘코미디 왕국 SBS’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되찾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웃찾사,





코미디 왕국의 명예 다시 찾겠다”

우리에게 승리는 부채, 실패는 자산 SBS TV는 1991년 개국 이후 〈코미디 전망대〉를 시작으로 〈웃으며 삼시다〉, 〈열려라 웃음 천국〉까지 연달아 최고의 코미디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점점 그 이름에 빛이 바래기 시작했다.

2003년 4월 20일 첫 방송된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하 웃찾사)에 대한 존재 의미는 그래서 더욱 컸다. 하지만 〈웃찾사〉가 받아든 성적표는 그닥 만족스럽지 못했다. 시청률 부진, 멤버 이탈, 방송 시간대 변경 등의 악재에 시달리며 한때 '폐지설' 까지 흘러나왔다. 그러나 "승리는 부채이고 실패는 자산이다"라는 그 누구의 말처럼 〈웃찾사〉 팀은 그 아픔을 아픔으로만 끝내버리지는 않았다.

2003년 말 박재연 PD가 연출을 맡으면서 〈웃찾사〉는 다시 서서히 일어서기 시작했다. '옥희' (김태균), '럭셔리 강' (강성범), '이기자' (이병진) 같은 고참급부터 '끔찍이' (김신영), '주현 & 앙드레 김' (문세윤) 같은 신인에 이르기까지 〈웃찾사〉 멤버들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조금씩 회자되기 시작했고 시청률도 평균 13%(닐슨 미디어리서치)로 안정을 찾아갔다.



순발력 만점, 현지화 개그 지난 6월 11일, 1주년 특집방송 공개 녹화가 있던 부산 정보대학 운동장은 〈웃찾사〉의 진보, 그리고 도약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웃찾사 부산이라예'란 '지방분권형' 이름으로 열린 이날 공연에는 무려 3만 5,000명의 시민이 몰려들었다. "아시아 최대의 코미디 공연"이라는 컬투(정찬우·김태균)의 호언장담이 전혀 허튼 소리로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부산시민들은 서울 등촌동 공개홀에서 탈출해 부산 원정에 나선 〈웃찾사〉를 2시간 전부터 찾았고 공연 1시간 전부터는 운동장에 놓인 간이의자에서부터 스탠드까지 꽉 들어찼다.

"반갑습니다. 제1의 항구도시 부산에 오니까 기분이 짜집니다"라는 컬투의 인사말로 〈웃찾사〉의 부산 공연은 시작됐다. 속담이나 격언의 말 비틀기를 통해 웃음을 자아내는 '먹어! 배고프니까'를 부산 스타일인 '목으라, 배 많이 굶았제'로 바꿔 진행한 컬투는 독도 관련 망언을 서슴치 않는 일본 극우파 정치인들과 고이즈미를 '사정없이 먹어버리는' 개그로 웃음을 자아냈고 영화배우 공형진이 가세해 웃음의 강도를 한층 높였다.

이어서 '1시간 느린 뉴스'의 이기자가 등장하면서 공연장은 후끈 달아올랐다. "부산시에 세계화를 추구하는 국제대학이 설립된다고 합니다. 이기자!"라는 앵커의 질문에는 "이기자입니다. 해운대입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대학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던데, 누구니까?"에는 "자갈치 시장"이라는 말로 응수하고, "재정지원을 한다는 분은 누구니까?"란 물음엔 "백사장"이란 답을 내놓는다. 이처럼 철저하게 현지화된 개그에 부산 시민들은 거대한 파도타기와 박수로 화답했다.

분위기가 절정에 오른 순간, '갈매기 합창단'으로 이름을 바꾼 '비둘기 합창단' 코너가 시작되고 무대 한가운데 대형 모형 케이크가 등장했다. 지휘자인 컬투의 정찬우가 '인간 초'가 되어 케이크에 오르자 사방에서 폭죽이 터지고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로 시작되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생일 축하 노래로 울려 퍼진다.

이어 텔런트 주현과 앙드레김 흉내를 완벽하게 내 인기를 끌고 있는 문세윤과 신인 개그맨 2명이 배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얼굴을 그려놓고 〈난 알아요〉에 맞춰 춤을 추고, '럭셔리 강' 강성범은 '이것이 얼마나 요것은 바로사체~'로 시작하는 삼류인생 개그를 선보였다. 여기에 서수남, 로버트 할리, 한기범 등 유명인들로 구성된 게스트들도 함께 해 부산 현지 공연의 의미를 더했다.





‘APT 경비대’, ‘단무지 아카데미’, ‘고운말 드라마’ 등의 코너가 끝나자 어느덧 시계는 밤 10시 30분을 훌쩍 넘고 있었다. 웃음주고 갈채받은 <웃찾사> 1주년 특집방송 녹화는 부산을 상징하는 노 라인 <부산갈매기>를 전 출연자들이 객석을 돌며 관객들과 손을 맞잡고 한 목소리로 합창하는 가운데 막을 내렸다.

우리는 아직 배고프다 <웃찾사>의 첫 돌 잔치는 그렇게 성대했다. 평소의 4배가 넘는 제작비가 투입된 이날 행사는 2003년 4월 20일 첫 방송 이래 <웃찾사>가 맞이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600석 규모의 SBS 등촌동 공개홀을 처음으로 벗어나 3만 명이 넘는 부산 시민과 같이 호흡했고 사크라, NRG, 공형진, 로버트 할리, 서수남 같은 특별 게스트들은 흥을 더해주었다.



<웃찾사>의 만형 노릇을 하고 있는 켄투는 “<웃찾사>는 후배들이 허락도 안 받고 자기들 코너에 선배들을 출연시키는 가족적인 분위기”라며 “일사불란하고 정밀하고 작전이 숨어있고, 뒤집어지는 반전이 있고 말 속에 장난이 있어야 한다”는 개그론을 동시에 폈다.

켄투는 “<웃찾사>를 1등으로 만들고 나가야겠다는 오기가 생긴다. <개콘>과 같은 시간대에 붙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담당 CP·PD부터 신인 개그맨까지 <웃찾사> 팀원들은 입을 모아 “KBS의 <개그콘서트>와 같은 시간대에 맞붙어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웃찾사>는 여전히 배고프다. 바람이 불어 서늘했던 한여름 밤, 부산 시민들이 <웃찾사>에 보여준 열기를 보고 있노라니 이들의 그런 소망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듯 싶었다.

글 / 김대성_한국일보 기자·사진 / 서창식

Coffee Break

박재연 PD



<웃찾사>의 박재연 PD야말로 ‘웃음을 찾는 사람’이다. 심형래 등과 함께 KBS 1기 공채 개그맨 출신인 그는 대학 재학 시절부터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젊음의 행진> 등의 작가를 맡아 ‘코미디 제조기’로 활동했다. 코미디 작가에서 개그맨으로, 다시 PD가 돼 <웃으면 좋아요>와 <꾸러기 대행진> 같은 코미디 프로의 조연출을 담당했다. 지금까지 ‘웃음’을 떠난 적이 없는 셈이다. 그런 그가 지난해 11월부터 <웃찾사>의 사령탑을 맡은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신인 투입 비중을 60% 이상으로 높이고 춤과 음악이 함께 하는 화려한 쇼의 요소를 더 강화했죠. 시간대가 불리한 만큼 아무래도 시선을 끌 필요가 있으니까요.”

70명이 넘는 <웃찾사> 팀 개그맨들을 지난 7개월 동안 이끌어 온 박 PD는 그간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렇다면 달라진 <웃찾사>에 대한 박 PD의 자체 평가는 어떨까?

“정통 코미디에는 좋은 의미의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해요. 불과 몇 분 무대에 서기 위해서 1주일을 고박 투자해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신인들을 60% 이상 투입한 <웃찾사>는 가능성이 있죠.”

“신인들이 군기가 세게 잡혔다. NG도 잘 안 낸다”며 만족스러운 눈치인 그는 “SBS 코미디가 최근 몇 년간 침체되어 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웃찾사>를 통해 당대 최고로 높은 시청률을 올려보고 싶다”고 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 프로’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의 야심찬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그들의 인기,
알고 보니 이유있었네”

특별기획 <파리의 연인>

지난 6월 12일 첫 전파를 탄 특별기획드라마 <파리의 연인>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첫 방송부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안방극장에 입성한 후 각종 기록을 갱신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작진도 놀랄만치 폭발적인 인기의 고공행진,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내가 곧 장길산이다!”

대하드라마 <장길산>의 또 다른 주인공, 활빈당 소두령들



드라마 〈장길산〉에는 주인공 길산 뿐 아니라 그와 함께 혁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스펙터클하게 펼쳐진다. 활빈당의 소두령들, 그들은 장길산의 또 다른 분신들이다. 소두령과 장길산을 떼어서 각자의 캐릭터로 볼 수도 없을 만큼 이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차라리 하나의 인물에 가깝다. 여기 그 여덟 명의 주인공 장길산이 있다.



혼자서는 결코 영웅이 될 수 없었다

〈장길산〉은 원고지 1만 장 분량에 이르는 실로 방대한 대작이다. 원작에서 펼쳐지는 스케일도 가히 환상적일 만큼 장길산은 여기저기 신출귀몰한다. 원작에서는 장길산이 소리없이 사라져 금강산에 들어가 도를 닦거나,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곤 하는데, 만약 드라마에서 길산이 도를 닦으러 산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아마 방송사고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가능한 일이었다. 책 속의 장길산이 사라진 부분에 대부분 채워지는 것이 바로 소두령들의 활약상이다. 길산과 함께 혁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스펙터클하게 펼쳐진다. 그들이 곧 장길산인 것이다. 또다른 장길산, 모두가 하나 하나의 장길산들이다. 소설에서는 굳이 장길산 개인에 집중할 필요가 없었다. 장길산은 상징적인 인물로 신비롭게 처리하고, 소두령들이 현실적인 혁명의 거사에 참여하는 영웅담이 소설의 내용 전반인 것이다.

장길산의 정신적 지주, 박대근

박대근은 장길산을 광대에서 혁명가로 이끌어 가는 인물이다. 박대근 역을 맡은 텔런트 김영호는 “박대근이 없으면 장길산도 없어요. 그가 존재했기 때문에 장길산이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박대근은 송도상인으로써 일찍이 시대의 불합리성을 깨닫고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마음먹는다. 후에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장길산에게 화승총과 말을 공급하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

“박대근이란 인물은 장길산의 또 다른 캐릭터입니다. 그가 가진 정신이 곧 장길산이 가진 정신이지요. 장길산보다도 먼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야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깨우친 인물이지요. 박대근은 상인으로 성공했으니 마음만 먹으면 한평생 편히 살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삶에 안위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실행하려고, 혁명을 도모하고 준비하지요. 박대근이라는 인물은 곧 ‘장길산’이라는 거대한 작품의 시작입니다.”

박대근은 장길산의 손위 의형이다. 송도상인 차인 행수로 시작하여 임방의 좌장까지 되어 나중에는 막대한 상권을 장악하게 된다. 청국과 밀무역도 서슴치 않는 담대함이 있고, 당시 금지되어 있던 인삼의 유통과 재배에도 성공한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박대근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세력을 모은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소두령들을 하나의 정신과 목적으로 모이게 하는 정신적 지주인 것이다. 장길산을 비롯하여 기구한 인생의 난관에 봉착해 있던 소두령들은 그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다.



박대근 역 김영호



이갑송 역 정준하

송을 두 번 죽이는 일인가? 하하… 하여튼, 저는 지금 이갑송으로 살고 있어요. 실생활에서도 종일 이갑송처럼 말하고 이갑송처럼 생각하게 되서 그것도 큰일입니다.”

실제로 정준하는 이갑송의 캐릭터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몸무게를 10kg 이상이나 불리기도 했다. 이러한 열정이 시청자들을 화면 앞으로 불러 모으는 비결이 아닐까.

죽마고우에서 든든한 혁명 동지로, 이갑송

사람에게는 항상 헌신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 하나 정도는 있게 마련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렇고, 어떤 운 좋은 이는 그런 친구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이갑송이란 인물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장길산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푼다. 이갑송 역을 맡은 개그맨 정준하의 얼굴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모두 순수한 마음 덕분이다. 자신이 덩치가 좀 크다고 해서 항상 친구보다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고된 일은 도맡아하고, 매맞는 일까지 대신할 만큼 그의 순수한 마음은 화면 안에서 돋보인다.

“제가 <장길산>이라는 대작, 그것도 사극에 출연한다고 했더니, 반응이 꼭 반반이더라구요. 사람들을 웃기는 게 직업이니까 드라마에서도 웃기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제가 저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가장 큼니다.”

이갑송은 장길산과 동고동락하는 오랜 친구이다. 재인말 광대 출신인 그는 힘이 장사다. 불륜을 들킨 아내가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을 알고 자신의 손으로 아내를 죽임으로써 기구한 팔자의 비극 한복판에 내몰리게 된다. 이 일을 겪은 후 이갑송은 스님이 되어 절로 들어가는데 후에 승병을 조직하여 장길산의 거병에 참가하게 된다.

“이갑송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원하고 단순하지요. 간혹 힘을 너무 믿는 것이 흠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그 단순하고 시원한 성격이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와 아주 비슷한 부분이 아닌가요? 아니 그건 이갑



궁술의 신, 우대용

<장길산>에 등장하는 소두령들은 모두 신기에 가까운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다. 박대근은 지팡이에 작은 단도를 꽂고 다니고, 이갑송은 장창으로 별이는 봉술이 그야말로 예술이다. 그중에서도 우대용이 뽑내는 활 솜씨는 최고라 할 수 있다. 우대용이란 인물은 원래 뱃사람으로 신의가 두텁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 장길산과 그 인물됨이 비슷하게 보이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장길산과 우대용은 같은 사형수로 감옥에서 만난다.

“장길산이 아닌 소두령은 없어요. 모두가 작은 장길산들이죠. 사방에 흩어져 있던 소두령들이 장길산과 우대용이 감옥을 탈출한 다음에 구월산에 모이게 되는데, 그때부터가 진정한 드라마의 시작 같아요. 지금은 열심히 각자의 캐릭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우대용 역을 맡은 탤런트 최철호는 이미 큰 배우이다. 소탈하면서도 진지한 그의 눈빛은 드라마 전체에서도 비중을 확실히 점하고 있다.

“지금은 장길산이라는 큰 기차의 기관차가 겨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 기차가 얼마나 빠르고 멋진 존재인지, 이제 곧 여러분 앞으로 지나갈테니, 열심히 지켜봐 주십시오.”

우대용 역 최철호

의적이 된 산적, 마감동

마감동 역을 맡은 이종수도 사극은 처음이다. 〈장길산〉에 출연하는 배우 대부분이 사극엔 처음이어서 그런지 기존 사극과는 다르게 특별히 신선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직도 얼굴은 앳돼 보이기만 하는데 어느덧 데뷔 10년이 되었다고 한다.

“사극은 10년만에 처음인데, 현대물과는 달리 오로지 드라마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 같아요. 현대물은 그것이 일종의 제 생활의 한 부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사극은 하루를 꼬박 매달려도 실통치 않으니 말이에요. 일단 한 번 분장을 하면 그때부터는 수백 년 전의 의적 마감동입니다. 하루를 꼬박 마감동으로 사는 것이 아직은 어색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제겐 너무나 흥미로운 경험입니다.”

마감동은 원래 산적으로 구월산 부두령 출신이다. 〈장길산〉에 나오는 인물의 대부분이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처럼 마감동도 예외가 아니다. 아내가 어릴 적 동무에게 겁탈당하고 자결하자 마감동은 낮으로 그를 죽이고 도망친 후 일찍이 활빈 사상을 깨우쳐 가장 먼저 장길산의 소두령이 된다.



마감동 역 이종수

장길산

괴력의 소금장수, 강선홍

드라마 〈장길산〉의 소두령 중에는 괴력의 사나이가 두 사람 있다. 하나는 승려가 되는 이갑송이고, 두 번째는 소금장수 출신의 강선홍이다. 조금은 무식하게 보이기도 하고, 힘만 믿는 어둔이로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괴력의 힘에는 민중의 순수하고 단순한 저항이 들어있다. 말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부당함에 민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던가. 나무를 뿌리채 뽑아 내던지는 것으로 자신의 억울함이나 달래는 순수함밖에 더 있었던가.

“강선홍은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이 가장 큰 인물이에요. 소두령 같은 것도 싫고 그냥 소금장수나 하려는 인물인데, 그가 가진 순수함에 상처를 입게 되자 사회에 등을 돌리고 독립당의 일원이 되죠.”

배우 박효준은 TV 드라마 자체가 처음이다. 그러나 혹 낮이 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연스러운 연기에 심지어 충격까지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눈썰미는 틀리지 않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천연덕스런 자연스러움을 기억해내는 데는 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그가 훌륭한 배우로 성장하고 있음을 강선홍 역을 통해 보여줄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영화는 어쨌든 좀 더 가족적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맡은 드라마가 대작인데다가 많은 출연자들의 분주함 속에서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그 긴장감이 저를 독려하지요. 기대해주신 만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강선홍 역 박효준

김기, 강말득, 그리고 최홍복 그 역할의 비중이 드라마 중반부터 힘을 얻게 되는 세 명의 두령이 있다. 먼저 독립당 책사 격의 김기(김병세 분), 그는 선비 출신으로 과거제도의 부당한 운영으로 패가망신하고 자살을 기도하다가 이갑송에게 구원되어 독립당의 일원이 된다. 병법에 능한 그는 후에 독립당의 전략과 전술을 맡는다.

다음으로 강말득(정사훈 분)은 몸놀림이 너무 빨라 지네의 발처럼 보인다 하여 ‘오공랑(지네)’ 이라고 불리운다. 양반가의 묘를 파헤쳐 부장품을 도적질하던 그가 장길산을 만나 독립당의 일원이 된다. 날카로운 쇠조각 자고를 날리는데 명수다.

끝으로 최홍복은 관의 횡포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변의 주동자로, 자비령으로 들어온 길산과 함께 행동하게 된다. 쇠도리끼를 들고 타작하듯 내려치면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인명이 흩날린다. 후에는 화승총의 명사수가 되어 쌍총을 들고 나서는 무술 신이 불만하다.

드라마는 수많은 조연이 주인공을 향해 사랑을 뽐내는 장르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주변적인 것이 가장 중심적인 것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때때로 드라마의 성공과 실패를 기늠하게 하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조연의 확실한 키를 준비한 드라마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작품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글 / 백가훈·자유기고가 · 사진 / 조광희

〈장길산〉은 원고지 1만 장 분량에 이르는 실로 방대한 대작이다. 스케일도 가히 환상적이어서 장길산은 여기저기 신출귀몰한다. 원작에서는 장길산이 소리없이 사라져 금강산에 들어가 도를 닦거나,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곤 한다. 장길산이 사라진 부분을 채우는 것은 바로 소두령들의 활약상이다. 또다른 장길산, 모두가 하나 하나의 장길산들이다. 그들이 곧 장길산인 것이다.



우리의 관심,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특별기획 〈2004 기아체험 24시간〉을 마치고

신은 인간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주신다고 했다. 하지만 홀로 설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은 고통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더욱이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부모나 어른이 없는 경우, 신은 어떤 대책을 준비했을까.

고통을 함께 하는 마음으로 SBS는 올해로 8년째 〈기아체험 24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 24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아체험 24시간〉은 전쟁과 재해, 기아로 인해 힘겨워하는 지구촌 곳곳의 어린이들의 삶을 취재해 방송을 통해 알리고 있다. 방송을 본 사람들은 어린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금을 하기도 하고 해외 어린이들과 자매결연을 맺기도 한다.



〈기아체험 24시간〉은 또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4박 5일동안 굶주리고 고통받는 친구들의 삶을 체험하는 뜻깊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특별히 무인도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집을 생중계로 연결해 가족들과의 애틋한 만남도 준비했다.

또 장충체육관에서는 6,000명이 넘는 친구들이 만 하루동안 피곤과 배고픔을 참으며 친구들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이렇게 기아체험은 단순히 소외된 곳의 힘겨운 어린이들을 취재하는 것만이 아니며 많은 친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체험으로 함께 이루어진다.

절망의 수렁에 빠진 아이들 2004년 기아체험을 통해 방문한 나라는 총 여섯 개국,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수렁에 빠진 어린이들이 너무도 많았다. 그중에서도 검은 대륙 아프리카 아이들의 생활은 참혹했다.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은 종족간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부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종족간의 전쟁은 장난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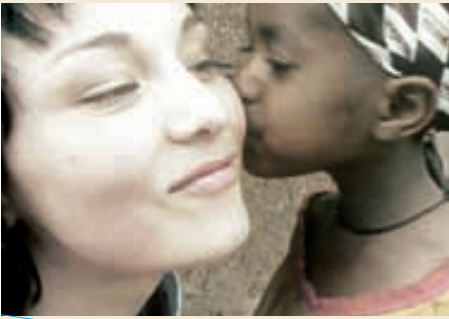
을 쥐고 놀아야 할 아이들에게 총과 칼을 들게 했으며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참혹한 일까지 겪게 만들었다. 한창 예쁜 웃음과 재롱을 피울 나이의 아이들은 에이즈라는 고통과, 가난이라는 절망 속에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중 에티오피아는 가난과 무지로 인해 에이즈가 만연해있는 나라다. 이곳의 에이즈 감염 수준은 심각하다. 에티오피아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1%에 불과하지만 에이즈 감염자의 수는 무려 9%나 된다. 가난으로 인해 소녀들은 매춘의 길로 들어서거나 나이 많은 남자에게 팔려간다. 남자들은 에이즈에 걸렸다 해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버젓이 결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 명 중 한 명 꼴로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문으로 향하고 있다.

사랑의 씨앗은 작은 관심 사랑을 베푸는 것은 결코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아체험을 통해 느꼈다. 그것은 너무나 작은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 세 끼를 먹고도 모자라 간식거리에 돈을 쓰는 우리들이 아닌가. 하지만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대부분 아이들에게 최고의 영양식이 달걀 한 개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거나 할까? 작은 관심과 함께 보내지는 간식비 2,000원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기적의 힘이 되고 있었다.

비행기로 세 시간이면 도착하는 나라 몽골, 1992년 급작스런 정권교체와 혹독한 추위는 몽골 사회 전체에 극심한 가난과 불안을 가져왔다. 마치 우리나라의 60~70년대를 방불케 하는 나라..., 자연히 교육과 의료수준은 낙후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몽골 전통가옥 게르에서 만난 일곱 살 남자아이 앙카는 마취기계도 작동되지 않는 열악한 병원에서 잘못된 수술로 인해 인공항문을 달고 있었다. 수술 부작용으



로 여섯 번의 대수술을 받으면서 몸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돼 있었던 앙카에게 가난한 부모는 아무 것도 해줄 수 없었다.

〈기아체험 24시간〉 팀에서는 앙카를 살리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한국의 병원을 찾아봤고, 결국 앙카는 서울에서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수술 이후 무엇보다 기뻐던 것은 우리나라 병원의 높은 의료수준 때문이 아니라, 아이의 얼굴에 활짝 피어난 웃음꽃이었다. 의사 선생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며 수줍게 웃던 앙카를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날개를 달게 된 앙카는 이제 세상 속으로 멋지게 뛰어들 것이다. 그리고 먼 훗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줄지도 모른다...

사랑과 나눔의 기아체험 비록 이름은 모르지만 전쟁, 기아, 에이즈, 노동으로 힘겨워하는 지구 건너편 친구들을 위해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배고픔과 고통을 체험하는 아이들..., 더러는 봉사점수를 얻기 위해, 더러는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 지원한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래 친구들의 고통스런 상황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끼고 돌아간다.

하지만 〈기아체험 24시간〉이 단순히 아이들만의 프로그램은 아닐 것이다. 우리도 6.25라는 전쟁을 겪었다. 가난과 굶주림으로 힘겨웠던 그 때, 선진국에서는 구호물품과 식량을 보내왔다.

만약 고통받는 아이들이 몇 십년 전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바라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자식이고, 나



의 조카이고, 나의 동생과 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이야기가 결코 먼 나라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렇기에 기아체험은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 가혹한 형벌을 받고 살아가는 아이들, 어떤 논리로도 이 아이들에게 지금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건너편 곳곳에서는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우리에게 단 하루 동안의 고통이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일년 열두달 반복되는 고통스런 삶이다. 〈기아체험 24시간〉을 통해 보내지는 2,000원이라는 돈은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한 달 양식이 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준다. 또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가치인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기회이기도 하다.

〈기아체험 24시간〉을 통해 많은 이들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지구촌 곳곳의 힘겨워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과 나눔의 삶을 한 번이라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게 한다고,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먼 훗날 어떤 큰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글 / 구현민 〈기아체험 24시간〉 작가 · 사진 / 조광희



난민캠프 체험기

내 인생에 영원히 잊지 못할 4박 5일

글 / 박해선 경북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3학년

대이작도로 가는 배 안에서 우리는 캠프에 대한 호기심으로 마냥 들떠있었다. 그땐 그저 즐겁고 신기할 뿐이었다. 캠프장에 도착한 우리는 난민이 되었다는 선서를 하였다. 오리엔테이션 때 VCR 자료를 보면서 재미있을 것 같다고만 생각했던 난민체험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

첫날, 배급받은 식량이 건빵이었다. “에이, 이게 뭐야!” 대부분의 아이들이 먹지 않고 한 쪽으로 밀쳐버렸다. 그렇게 굶은채로 밤늦게까지 난민촌을 건설한답시고 어설픈 재주로 푹떡거리다 보니 어느새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둘째 날은 갑자기 울려대는 사이렌 소리에 다들 놀라 대피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여러가지 포스트 활동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 날이었다. 화생방 훈련, 소년병 훈련, 식량찾기, 암호해독, 유서쓰기, 식수 만들기 등... 여러가지 체험을 하면서 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게 하려는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었다. 솔직히 육체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날이 이 날이었다. 그 전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라 보니 애들끼리 서로 짜증을 부리는 경우도 생기고 행동 역시 굴뚝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새벽에 시작된 포스트 활동은 저녁에 되어서야 끝이 났다. 그런데 캠프장에 돌아와 보니 어제 하루 종일 열심히 만들어놓은 텐트가 다 망가져 있었다. 짜증을 낼 기운도 없었다. 그냥 다들 묵묵히 다시 난민촌 텐트를 만들고 피곤한 몸을 쉬었다. 셋째 날, 구호물자가 도착했다. 설익어서 딱딱한 밥에 양도 적었지만 그걸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포스트 활동에서 얻은 감사도 모탁물에 구워 먹었는데 정말 맛있게, 그것도 감사하며 먹

었다. 학교 급식을 반이나 버리고 매일 맛없다고 투정부렸던 게 다 사치에 불과했던 것이다.

넷째 날은 난민촌 콘테스트와 장기자랑, 캠프파이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무인도 체험에 대한 소감과 결심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언제 그렇게 정이 들어버렸는지 내일이면 이별이라 생각하니 너무나 슬펐다. 또 VCR로 엄마가 보내온 메시지를 볼 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처음엔 그렇게도 느리게 가던 시간이 어느새 우리를 마지막 날로 데려다 놓아버렸다. 퇴소식 후 집이 먼 아이들부터 먼저 떠나기 시작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신 부모님들의 얼굴을 보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좌중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대이작도를 떠나 인천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시켜도 하기 싫어하던 찬가와 촌구호를 누군가가 갑자기 하기 시작했고, 배가 멈출 때까지 그 노래들을 계속 반복한 것이다.

나에게 이번 경험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안겨주었다. 명예기자로 활동하고 인터뷰를 한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기아체험 난민캠프에서의 귀중한 시간이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더 알차게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캠프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머리 속에 기억될 것이며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경험들을 얻게 되어 너무나도 행복하다.

그중에서도 그동안 말로만 머리로만 이해하고 생각해왔던 난민들의 고통을 직접 느끼게 된 것이야말로 이번 캠프의 가장 보람된 결과이다. 처음엔 힘들다고만 하던 아이들이 내년에도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한 걸 보면 분명 이 난민캠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본다.



“작은 사랑이 모인 곳, 아름다운 TV 장터로 오세요”

우리 주위엔 큰 사건이나 재해가 아니더라도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많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서로 돕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서로 돕고 나누는 정신은 평상시에도 늘 필요한 것 아닐까. 마침 그런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가시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눈길을 끈다. 매주 목요일 SBS를 통해 방송되는 〈TV 아름다운 가게〉가 바로 그것이다.

작은 도움이 더 절실한 이웃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위기에 강한 국민도 없을 것이다. IMF 같은 경제난이 오거나 큰 재해로 이재민이라도 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다 함께 나서서 금도 모으고 부지런히 온정의 손길을 펼친다. 그러나 위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웬지 어려운 이웃과 사회의 음지에 무관심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이런 경향은 방송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체로 무슨 큰일이 나야 모금운동을 펼치고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분위기다. 사실 우리 주위엔 큰 사건이나 재해가 아니더라도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을 텐데 말이다. 마침 그런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가시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눈길을 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35분부터 SBS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TV 아름다운 가게〉가 바로 그것.

실재 시민단체인 ‘아름다운 가게’에서 비롯된 기부운동을 모티브로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의 김태욱, 이혜승 두 아나운서가 MC를 맡고 ‘아름다운 가게’의 공동대표인 손숙이 고정 패널로 참여하여 나눔의 기쁨을 알리고자 시청자 결을 찾는다.

시청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 오래되고 안 쓰는 물건, 필요 없는 물건들을 기증받은 후 깨끗이 닦고 보수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판매하는 시민단체 '아름다운 가게'의 활동을 TV로 확장시킨 〈TV 아름다운 가게〉. 어찌 보면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격이므로,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기부'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은 어색하고 어딘지 모르게 멀게 느껴지는 우리들. 그러나 기부라고 해서 뭐 대단한 독지가 또는 재벌들하고나 관계있는 이야기라고 치부할 필요는 전혀 없다. 큰돈이나 값비싼 물건만이 기부의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다.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 버려지는 물건의 약 80%가 사용 가능한 것들이란다. 조금만 손보면 새 것처럼 쓸 수 있는데도 유행에 뒤처지거나 둘 공간이 없어 버려지는 물건들. 바로 그런 물건들이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뜻깊은 일에 사용되는 소중한 자원이다. 사실 버리는 데도 돈이 드는데, 가게 절감의 차원에서, 또 뜻깊은 일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도 두루두루 좋은 일이다.

"OECD 가입국 중 유독 우리나라만이 기부문화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해마다 이웃돕기 행사가 벌어지긴 합니다만, 그때마다 특별 생방송이라는 프로그램의 한계를 깨닫곤 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정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낀 것이지요."

선진문화 없이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는 박영호 프로듀서의 말이다.

그러나 뜻이 좋다고 무조건 시청자들을 텔레비전 앞에 붙들 어둘 순 없다. 그래서 아기자기한 구성과 진행으로 보는 재미도 최대한 덧붙였다.

재미를 더한 다양한 코너들 〈TV 아름다운 가게〉는 몇 개의 작은 코너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코너가 '사랑나눔 37.5'이다. 가난하지만 나눔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큐 형식으로 따라가며 그들의 나눔 정신을 배워보는 코너다.

"사람의 체온이 36.5도잖아요. 거기에 사랑을 1도 더하여 37.5도로 높여보자는 것이 이 코너의 제목이자 목적입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코너는 '움직이는 가게'다. 이 코너는 매회 인기 연예인이 출연하여 '움직이는 가게'의 일일점장이 되어 물건을 팔고 그 수익금을 수혜자에게 전달해



주는 형식을 취한다. 젊음이 넘치는 동덕여대의 축제 현장에서는 이 학교 출신 연예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또 잠실 야구 경기장에선 하리수가 출연하여 일일점장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프로그램의 뜻에 동참하는 입장에서 출연료마저 기부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업의 참여도 눈에 띄게 늘었다. 대웅제약 직원들은 회사의 물품을 기부하고 판매에까지 참여했고, LG 프로야구단 선수들이 기부한 물품들은 즉석 경매를 통해 높은 이익을 남기기도 했다. 이렇게 모아진 수익은 대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약자나 불우이웃을 위해 투명하게 쓰여 진다.

세 번째 코너는 예술가의 시각으로 잡아낸 나눔의 현장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 여기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사진작가 김중만이 격주로 출연하여 '활동천사'들의 모습을 직접 카메라에 담는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나눔 줄 아는 그들의 눈빛과 모습에서 작지만 커다란 희망을 찍어내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사진을 통해 나누는 기쁨을 느끼게 만들어야죠." 그는 후에 나눔 사진전을 열어 또다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계획이라한다.

〈TV 아름다운 가게〉는 나누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눔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대한 눈길도 거두지 않는다. 네 번째 코너 '1%의 행복한 세상'은 병마와 싸우는 백혈병 어린이, 몸이 불편한 독거 노인 등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소개한다. 고루고루 도움의



손길이 닿도록,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진은 정말 열심히 뛰고 있다.

나날수록 커지는 기쁨 <TV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제작진의 바람은 점점 빛을 보고 있는 듯 하다. 이례적으로 높은 시청률이 이를 증명해 준다. 시청자와 기업의 직접적인 참여도 늘고 있다. 얼마 전 모 고속버스 회사에서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한 버스 두 대가 개조를 마치면 ‘고속버스 아름다운 가게’로 이름 붙이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빌 계획이다.

“기업, 학교, 역이나 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면 어디든 찾아갈 예정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국회와 청와대도 찾아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혹 ‘아름다운 가게’의 로고가 쓰인 버스가 보이면 꼭 한번쯤 들여다 볼 일이다. 저렴한 값에 평소 필요했던 물건도 장만하고, 더불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작은 사랑도 몸소 실천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TV 아름다운 가게>는 제작진이나 출연자, 그리고 시청자 모두에게 뜻깊고 의미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부디 눈에 띄진 않지만 늘 곁에 녹아있는 산소와 같은 프로그램이 되길.

글 / 김진희_자유기고가 · 사진 / 김연석



Postscript | 프로듀서 박영호 부장

<TV 아름다운 가게>를 책임지고 있는 박영호 프로듀서. 요즘 그는 여러가지 칭찬을 듣느라 기분 좋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저 “재미있다”, “의도가 좋다”에서부터 가끔 “상업방송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놀랍다”라는 날카로운 멘트까지 듣고 있다고.

“사실 SBS는 최근 ‘물은 생명이다’ 같은 공익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상업방송 이미지가 강한 것이 사실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런 인식이 좀 바뀐다면 그것도 보람이죠.”

더불어 살기 위한, 일종의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캠페인성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었고, 그 의도가 운 좋게 시청자들의 의견과 맞아 성공하게 된 것 같으며 그는 겸손을 보인다.

스스로도 ‘아름다운 가게’ 운동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작업한다는 그는 <TV 아름다운 가게>가 머지 않아 범국민적인 캠페인이 될 것이라고 예감한다.

“제 개인적인 바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도와주실 테니까요.”

박영호 프로듀서의 말대로 <TV 아름다운 가게>는 보기만 해도 좋은 일을 하게 되는 정말 드문 프로그램임이 확실하다.

내가 걸어가는 곳, 거기 나의 길이 있었다

여기, 길이 있다.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운수 좋은 일이 닥칠 것 같은 길이다. 애초부터 이 길을 가려고 한 건 아니다. 저 길로 가려 했지만 뭔가 자꾸 잡아당기는 기분이 들었던 길이었다. 그래도 이 길로 들어서지는 않았다. 하지만 저 길로 가다보니 어느새 길은, 이쪽 길로 이어져 있었다. 다른 길로 가도 한 길이 되는 길의 운명. 길의 자유. 그 길 위에 배우 정진영이 서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정진영

예기치 않은 곳에서 길은 찾아오고 대학을 다니면서 연극반에 들어갔다. 그게 나하고 맞는 일 같았다. 내가 연극을 왜 좋아하게 됐는지 그건 기억이 잘 안 난다. 독특한 느낌에 기대고 싶어서였던 것 같다. 그게 나하고 어울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몰입할 그 뭔가를 제대로 찾은 기분이 들었다.

연출에 관심이 있어 연극반에 들어간 나는 우연한 기회에 연기를 하게 되었다. 성격상 무대에 오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뭐든 맡은 일에 열심인 나로서는 그 일에도 열심이었다. 분명 큰 경험이었다. 내가 '나'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 산다는 것에 매료됐다. 공연이 끝나고 마치 무슨 병에 걸린 사람처럼 며칠을 앓았다. 청춘의 시간들이 객관화되는 느낌이었다.

졸업을 하고도 연극인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것을 찾고 싶었다. 연극이 싫어서가 아니라 역시 연출에 대한 막무가내의 꿈이 나를 가만 두지 않았던 것 같다. 충무로 연출부에 들어가기로 맘을 먹었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큰 고민은 없었다. 나는 인생의 조용한 시작을 내 자신에게 알렸고, 두려움 따위는 어차피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건 아니기 때문이었다. 내가 걸어감으로써 길이 되리라 믿었던 시기였다. 비록 허공을 걷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걸음으로써 그 길은 진정 내 길이 되리라 믿었던 청춘의 시기.

나는 새 영화의 연출부원으로 살짝 직업을 바꾸었다. 전혀 다른 판에서 어설픈 시작을 한 나는, 기계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내 자리를 확인하고 또 내 자리를 만들고자 했다. 연출부로 있으면서 연기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초록 물고기〉에서 트럭을 모는 한석규의 형 역할을 맡게 된 거였다.

쑥스러운 외도였다. 하지만 그 외도가 이렇게 나를 큰 길로 내몰게 되리라곤 그 누구도, 나조차도 미리 짐작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는 것 만으로도 아찔한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고맙다. 운명이 나를 그리로 몰아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또 다른 나를 불러낸 커다란 이름 하나 나는 배우가 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건 계속해서 뭔가를 느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그 느낌을 통해 나를 만들어가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그 느낌을 전달해 주는 일. 나는 그 일이 좋다. 더군다나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는 도무지 불가능한 직업이라는 것이 더 맘을 끈다. 사람을 좋아하는 일, 사람으로서 그것은 얼마나 사람다운, 아름다운 일인가.

그렇다고 폭넓은 친교를 하는 편은 아니다. 활달하거나, 발이 넓어서 여러 층의 사람을 만나는 편이 못된다. 그건 성격이 시키는 일 같다. 그 중에서도 난 정직한 사람이 좋다. 정직한 사람 앞에서는 내 자신이 열리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배우가 되고 나서 사람 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사람을 좋고 싫고의 차원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통째로 보게 되었다는 것. 통째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연기를 하는데 막강한 힘이 된다.

배우로의 길에 익숙해져 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내게 다른 길 하나가 찾아왔다. 분명 다른 길. 과연 이 길은 걸어야 할 길인지,

너무나도 큰 이름 앞에서 나는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 명망 높은 방송에 투입돼 누를 끼치지 않는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렇게 겨우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할 줄 아는 걸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배우의 연기방법을 동원하여 논리에 감정을 신자는 생각이 그것이었다. 그래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나가보자는 거였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내 가족을 생각하거나 친구들을 떠올리기도 한다. 내 생각이 어떻게 전달될까, 어떻게 전달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나는 마지막 제작자가 아닌, 최초의 시청자 자격으로 방송을 만든다.

세상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가슴에 '어떻게' 가서 박히고 '무엇'을 생각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은 어느 쪽 길을 선택하고 걸어야 하는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이다. 사회에 대한 진한 애정을 가진 프로듀서와 작가들과 호흡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역시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진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고착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일 것이다. 사실 나는 '진지함'까지는 아니라도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고는 싶다. 배우이기 때문에 다른 느낌의 무엇을 소화하고도 싶은데 성정이 그래서 그런지 들뜨지 않는다는 것, 나에게서는 그런 면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안으로 수그러드는 역이 몸에 잘 맞는다. 좋다 나쁘다 할 거 없이 '그게 그냥 나'라고 생각하고 산다. 근데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내게 덧씌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엇그제 술자리에서 누군가 나한테 물었다. 행복하냐고. 나는 되물었다. 행복이 뭐냐고. 나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이 뭔지 듣고 싶었다. 그 사람은 내게 행복이 뭔지도 모르냐고 물었다. 며칠 행복에 대해 생각했던 것 같다. 자기 자신에 대해 떳떳한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충만함을 느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나는 그게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꼭 말해줘야겠다. 나는 행복하다고. 근데!

근데 문제는 바쁘면 행복한 줄도 모르고 살게 된다는 데 있다. 배우라는 직업은 자기를 정면으로 봐야 하는 직업인데 나를 볼 새 없이 남을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어쩌면 자신을 정면으로 볼 시간이 없어서 난 덜 행복한 축에 드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지 난 요즘 초심(初心)이란 말을 자주 생각한다. 첫 마음을 생각하려고 한다. 내가 언젠가 가졌던 마음을 더듬자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져야 할 첫 마음은 무언가 하고 말이다. 첫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순해진다. 인생이 가지런해지는 느낌이 든다.

끊임없이 뭔가가 닥치는 일이 인생이고, 그 닥치는 일을 잘 맞이하고, 헤쳐나가는 게 인생의 길이란 생각이 든다. 그 인생을 통째로 느끼고 싶다. 느끼며 살고 싶다. 조금 욕심을 낸다면 그 느낌들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니 같이 가 주었음 한다. 내 길에 당신도 함께 해줬으면 한다.

글 / 이병률·서인·사진 / 김연석

스무살, 세상을 물들이다

탤런트 한지혜

바다는 햇살과 기온과 날씨에 따라 색깔을 바꾼다. 아침바다와 밤바다의 느낌이 다르듯, 그는 극중 배경에 따라 변신이라도 하는 것처럼 자신의 빛깔을 바꾼다. 한 외판 섬의 선생님이 된 그가 오늘은 또 어떤 빛깔로 나타날까. 바다에 비친 그의 그림자 위에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묘한 빛깔의 햇살이 일렁이고 있다.

순수 열정의 여전사 극도로 우울한 일이 있어도 그와 함께 단 5분만 마주앉아 있으면, 그날이야말로 아주 특별히 기분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언제나 건강한 웃음과 활기와 자신감이 버무려져 있는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넓은 바다 앞에 선 듯 속이 시원하기 때문이다. 그런 그는 드넓은 대륙을 향해 돌진하는 거침없는 여전사 같다. 두려울 것도 거칠 것도 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 나가는 순수 열정의 여전사!

“지금 제가 맡은 홍은수라는 캐릭터는 어려운 환경을 꿋꿋이 이겨내면서 열심히 사는 여자인데,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밝고 시원한 성격이 저와 비슷해요.”

어쩌면 저토록 다부지고 자신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올망지다. 게다가 예쁘고 우아한 척 하기보다는 솔직담백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그런 과감함을 가지고 연기를 펼친다. 그것이 그의 힘일 것이다. 이제 연기생활 1년도 채 안된 그가 벌써 두 번째 주연을 맡으며 불쑥불쑥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힘이라니!

섬에서 낚은 대어(大魚) 그는 요즘 <섬마을 선생님> 촬영 때문에 신안군 하태도에 머물고 있다. 목포에서 배를 타고 네 시간은 족히 들어가야 하는 섬인데, 워낙 여행을 좋아해서 그곳에서의 생활이 답답하거나 불편하지만은 않단다. 오히려 제한된 공간이 또 다른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단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연기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게다가 드넓은 바다, 멋진 기암절벽, 푸른 나무들, 순수한 사람들이 있는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어제 오후엔 잠시 제 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 낚시를 했는데 대어를 낚았어요! 우럭이었는데, 스테프들과 함께 회 떠먹었다니까요!”

그가 낚은 대어는 무엇이었을까. 싱싱하고 투명한 웃음의 꿈 많은 나날들? 배우의 세계를 자유로이 헤엄쳐 다니는 연기의 꿈? 어쨌든, 그는 지금 <섬마을 선생님>에서 파도와 햇빛을 이겨내며 천천히 대어를 낚아 올리는 중이다. 어쩌면 우리가 화면에서 건져 올리는 대어가 그일지도 모르겠다.



세상의 모든 빛깔, 스무 살 그는 이제 막 스무 살이 되었다. 이번 촬영 중에 스무 살이 되는 밤을 맞으며 많은 축하와 함께 선물도 받았다. 그러면서 그는 다짐했다.

“제 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소신있게 걸어갈 거예요. 항상 같은 모습의 한지혜지만, 세상 모든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스무 살이 되었다고 하니까 인생, 그리고 연기에 대한 책임감이 마구마구 생기더라고요.”

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발랄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한지혜, 그는 이제 더욱 성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헤엄쳐 올 것이다. 섬마을에서 그가 움직일 때마다 물결처럼 번져 나오는 빛깔이 우리를 물들일 것이므로, 기대의 낚시줄을 팽팽하게 드리워도 좋겠다.

글 / 정영_서인 · 사진 / 최인호_프리랜스 사진가

SBS 주말극장 <작은 아씨들>에서 맹활약중인 이윤미와 후니훈이 브라운관의 새로운 루키로 급부상 중이다. 두려움 없는 청춘처럼 이들은 드라마 안팎에서 '좌절금지'를 외치며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고 있다. 바라보는 것 만으로도 청량감을 주는 이들의 시원한 매력에 빠져들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 같다.

여름처럼 상큼하게, 여름처럼 뜨겁게

<작은 아씨들>의 이윤미 & 후니훈



연기요? 아주 신나는 일이지 이윤미와 후니훈은 '솔직·자유·열정'이라는 단어가 제법 폼나게 어울리는 연기자들이다. 계절로 치면 상큼함이 물씬 묻어나는 여름같다. 드라마 <작은 아씨들>에서 이들은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감을 창과 방패 삼아 당당히 맞서고 있는 중이다.

정통 드라마에 첫 도전하는 '인득' 역의 이윤미와 '장땡' 역의 후니훈은 자신들의 배역에 대해서 '맞춤옷 같은 캐릭터'라고 이구동성이다. 극중에서 가수지망생인 이들은 실제로 연기를 하기 전 가수로 활동한 전력 때문인지 연기활동이 신바람나는 일이라고 망설임없이 토해낸다. 그래서지 드라마 속 그들의 모습은 무척 자연스럽다.

평소 내 모습대로 연기하니 어렵지 않아 "인득이나 저나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가 인생 모토지요. 다른 사람한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점도요. 네 자매 중 막내인 인득은 언니들과 엄마가 다르다는 태생적 슬픔이 있지만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는 속 깊은 아이죠. 경직된 집안 분위기를 랩과 힙합춤으로 바꿔놓는 분위기 메이커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윤미에게서 순간 인득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연기 왕초보인 후니훈은 "장땡이라는 인물이 제 본래 모습이에요. 친구에 대한 배려나 음악에 대한 열정... 뒤편, 기타 등등요. 감독님은 저에게 꾸밈없는 제 본모습을 주문하셨죠. 그 주문에 충실하니까 연기가 생각처럼 어렵지 않았어요. 또 드라마 안에서 음악적인 비중이 높아서 연기하기가 훨씬 수월한 편이죠"라며 신인답지 않은 여유를 보인다.

연기와 노래로 대화하지요 일명 폭탄머리, 그리고 런닝셔츠 위에 넥타이 등, 톡톡 튀는 의상과 헤어스타일로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이윤미와 후니훈은 여러 분야에서 이미 그 끼를 발산해왔다. 1998년 슈퍼엘리트모델대회에서 베스트탤런트 상을 수상하며 데뷔한 이윤미는 여성 듀오 '더 에스'의 멤버로 활동했고, 후니훈 역시 언더그라운드에서는 1급 래퍼로 정평이 나있는 실력파다. 최근에는 이동통신회사 광고를 통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후니훈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윤미에게 랩과 비트박스를 가르쳐 주며 음악적 열정을 다지는 등 준비된 찰떡호흡을 과시하는 이들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후니훈 씨와는 '노래'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잘 통해요. 일상적인 공감대 형성도 잘되고요."

"이윤미 씨가 저보다 한 살 어리지만 대사 외우는 것도 도와주고, 상황 설명도 자세하게 잘 해줘요. 많은 도움이 되죠. 무엇보다 윤미 씨는 가수 활동을 해서 그런지 랩과 비트박스를 처음 배우는데도 너무 잘해요. 음악적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글 / 라미진 자유기고가 · 사진 / 서창석



연출 / 전문수

방송 / 107.7MHz 파워 FM · 매일 밤 10시

독특한 음악과 독특한 입담으로 가득
지난 5월,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환희에서 박용하로 텐텐지기가 바뀌면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톤도 달라졌다. 예전 환희의 <텐텐클럽>이 주로 십대 청취자들을 공략했다면, 박용하의 <텐텐클럽>은 보다 폭넓은 층을 사로잡고 있다. <텐텐클럽>의 지휘관 전문수 PD는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독특한 음악과 독특한 입담이 있는 재미있는 음악프로그램'으로 <박용하의 10!10!클럽>을 소개한다.

다른 매체들로 흘러간 청취자들을 다시 라디오로 불러모으기 위해 <텐텐클럽> 제작진은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올 라이브의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최고의 가수가 선사하는 라이브 무대인 '화요일예술무대'에는 엠씨 더 맥스를 필두로 해 박효신, 김범수, JK 김동욱, 김윤아, 데이 라잇까지 실로 파워풀한 가창력을 지닌 가수들이 출연한다. 라이브 현장에서 생생히 전해지는 감동의 파장은 청취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전 연령층의 지지를 끌고루 얻으며 '세대공감'까지 이끌어 냈고.

고민을 한 방에 날리는 청춘의 비상구
청취자의 폭을 넓혔다 해도 십대 친구들을 빼놓고 <텐텐클럽>을 논할 순 없다. 텐텐을 끌어가는 행동대장들은 뭐니뭐니 해도 우리 십대들이다. 작사가 장대성, 개그우먼 정정아, 십대들의 사랑을 독식하는 막내 오종혁, 여기에 우리의 텐텐지기 박용하 네 사람이 해결사로 나섰다!

금요일 코너인 '짱가네 사람들'은 청취자들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주는 청춘들의 비상구이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짱' 하고 나타나

“라디오에 실어보낸 소년의 꿈,
텐텐지기 청년으로 이루어졌죠”



박용하는 부드러운 남자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그는 의외로 남성스럽고 의외로 직선적이며 또한 생각처럼 로맨틱하다. 자연인 박용하가 궁금하다면 매일 밤 10시, <텐텐클럽>을 찾아가자. 수수하고 따뜻해서 사람냄새 풀풀 풍기는 텐텐지기 박용하가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말끔히 해결해주는 쟁가처럼 색다른 개성을 사랑하는 네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결한다. 특히나 청취자들에게 삼촌으로, 쟁가식구에겐 대장으로 불리우는 장대성의 걸쭉한 입담은 청취자들을 거의 실신지경으로 몰아 넣는다.

헌데 요즘 십대들은 뭘 제일 고민할까? 역시나 이성문제, 학업문제, 진로고민이 가장 많다. 털이 많아 고민중인(!) 여중생, 발냄새 심한 과외선생님 때문에 고민하는 귀여운 청취자들도 있고, 모두의 가슴을 무겁게 만드는 진중한 고민도 있다. 어떤 고민이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 '쟁가네 사람들'의 수칙 1호다. 그래서일까? 오늘도 우리 친구들은 총천연색의 고민을 들고 쟁가들에게 간절히 SOS를 보내고 있다.

라디오가 줄 수 있는 최대치의 즐거움 이밖에도 류시원, 김기수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좀체 만나기 어려운 게스트들의 맛깔스런 재담을 맛볼 수 있다는 게 <텐텐클럽>의 또다른 자랑이다. 색다르게 즐기는 음악, 특정한 입담, 라디오가 줄 수 있는 최대치의 즐거움이 있는 곳, 오늘밤 당신을 <텐텐클럽>으로 초대한다.

그곳엔 형이고 오빠이며 연인이자 동생같은 텐텐지기 박용하가 있다. 그리고 '지직' 거리는 아날로그의 감성을 추억하는 따뜻한 사람들의 체취도 느낄 수 있다.

글 / 위지영 자유기고가 · 사진 / 조광희

Talking with Nice Guy

DJ 박용하

“안보이는 가운데서도 서로 공감하고 정이 느껴지는 라디오만의 맛이 무척내고 좋았죠.”

진득한 라디오의 그 '맛'을 이미 초등학교 때 알아버린 그는 꽤 조숙한 소년이었다. 그렇게 맺어진 라디오와의 인연은 학창시절 내내 그와 동행했고 그에게 DJ의 꿈을 심어 놓았다.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무렵엔 이소라, 윤상, 김현철, 고현정 같은 분들이 DJ를 하셨죠. 그때 정말 라디오에 빠져 살았죠.”

예민한 감수성으로 출렁이던 학창시절, 라디오에 얹힌 소소한 추억담 하나씩은 누구든 갖고 있을 것이다. 밤새 굵적였던 뽕탕 상념들을 빨간 우체통에 찔러넣던, 설레면서도 뿌듯했던 그런 추억 말이다.

그도 그랬단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구구절절 사연을 보내며 이제나 저제나 자신의 이름 석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춘기 소년... 이젠 그 마음 그대로를 청취자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한다.

전문수 PD는 ‘어떤 주제나 내용도 순발력있게 소화해내는 가능성 있는 DJ’라고 텐텐지기 박용하를 소개한다. 라디오에 대한 애정이 컸던 만큼 텐텐지기에 대한 그의 의욕도 대단하다.

“SBS 파워 FM 진행자 중에서 제일 애착을 가진 사람이 접니다. (웃음) 많이 도와주십시오”라며 깔끔한 마무리를 잊지 않는 텐텐지기 박용하. 듣는 사람이 많아야 그만큼 많이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의 말이 참 정겹게 들렸다.





슈렉, 컬러 코드를 뒤집다

덤직하고 유쾌한 괴물, 슈렉이 돌아왔습니다. 1편에 비해 스토리의 창의성은 다소 떨어지는듯 합니다. 그러나 조연급 캐릭터가 강화됐고(장화 신은 고양이, 너무나 짝꿍합니다!), 패러디가 보강됐습니다. 재미로만 따지자면 1편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슈렉의 피부색이 왜 녹색일까 궁금했던 분 계시나요? 몇 가지 추측을 해보죠.

‘비틀기와 뒤집기’, 또 ‘정치적인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영화가 <슈렉> 아닙니까. 그러니 슈렉의 피부색을 희게, 검게, 또는 누렇게 함으로써 쓸데없는 편견을 불러 일으킬 필요는 없었겠죠(하지만 슈렉이 인간으로 바뀌었을 때는 백인이더군요). 아니면 지금 온 세계가 ‘그린 바람’에 ‘웰빙 열풍’ 아닙니까. 가장 환경친화적인 색인 녹색으로 유행에 한 번 편승해보려 한 것일까요?

정답은? 뜻밖에 단순합니다. 서양 문화권에서 괴물의 색은 녹색입니다. 우리가 범복은 검정색이고, 의사 옷은 흰색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영화 <헐크>에서 괴물 헐크의 피부색은 녹색입니다. SF영화에서 외계 생물체의 피부 또는 피가 빨간색이던가요? 녹색 계통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유서깊은 야구장인 펜웨이파크의 거대한 초록색 담장, ‘그린 몬스터(Green Monster)’로 불립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살바도르 달리 전시회에 가면 ‘성 게오르기우스와 용(龍)’이라는 작품에서 녹색의 ‘악룡(惡龍)’을 볼 수 있습니다.

녹색은 성장과 생명을 상징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생장의 광기, 무한한 번식은 대자연의 광포함을 상징합니다. 또 뭔가가 부패할 때 생기는 초록색은 멸망을 암시하지요. 유럽의 악령은 녹색 또는 검정색을 씹니다.

한 서양 예술사가의 말입니다. “생명과 성장의 유일한 보증인 생식력의 초록 사자가 기독교 도덕 옹호론자들에게 완전히 오인됐다. 초록이 가진 생명의 잠재력, 무성한 생식력,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방종한 성관계의 혐의가 ‘과거의 용’을 원죄와 악마의 상징으로 만들게 했다.” (‘색의 수수께끼’ 1999, 세종연구원)



그래서인지 개신교를 믿는 서구 국가 가운데 녹색이 들어간 국기나 대표팀 유니폼을 가진 나라는 없더군요. 유럽 국가 가운데 국기에 녹색이 들어간 나라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불가리아, 헝가리, 리투아니아인데 모두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성 패트릭의 날(St. Patrick's Day)'에 초록색 옷을 입는 것은 뭐냐구요? 이 날은 아일랜드의 성인인 패트릭 주교를 기리는 날로,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명절로 즐기면서 서양 문화권에서 축제화된 날입니다. 녹색은 패트릭 주교와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색으로 아일랜드 축구 대표팀 유니폼이 바로 녹색이지요.

이번에는 슈렉 못지않은 여장부, 피오나 공주를 한번 생각해보죠. 피오나 공주의 머리 색깔 기억하십니까? 붉은 색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빨강머리쥬. 중세에 빨강머리 여자는 마녀로 몰려 사형을 당하기도 했고, 예수를 배신한 유다는 빨강머리로 자주 묘사됩니다. 호오돈의 유명한 소설에서 불륜을 저지른 여자가 가슴에 'A' (adultery, 간통)라는 글씨를 새기고 살아가라는 벌을 받습니다. 바로 '주홍(Scarlet) 글씨'입니다.



하지만 <슈렉>에서 빨강머리 피오나 공주는 착하고 강하며 내면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인이지요.

<슈렉> 캐릭터 가운데 피오나 공주의 머리 색과 같은 피부색을 가진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용(龍)입니다. 붉은 색 용이죠. 서양에서 빨간 용은 아마 <슈렉>이 처음 선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이 용은 나쁜 이미지까지 벗었습니다.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는 용은 당연히 녹색이고, 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녹색 괴물도 알고 보니 유쾌한 친구였다는 것, 공주도 빨강머리일 수 있고, 용(龍)도 빨간 색일 수 있다는 것, 겉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슈렉>이 뒤집어 놓은 컬러 코드이자 문화 코드입니다.

단,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색의 이미지도 상대적입니다. 또 한 가지 색이 서로 대립되는 이미지들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녹색은 마호메트가 가장 좋아했던 색으로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성스러운 색이고, 빨간색은 서양에서도 악령을 막는다고 해서 갖난아기를 감싸는 포대기의 색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용(龍)은 서양에서는 괴수(怪獸)일지 몰라도 동양에서는 영수(靈獸)입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지요.

글 / 이주형_보도국 인터넷뉴스팀 기자





나팔꽃이 피었네

작게, 낮게, 느리게...

‘더 크고, 더 높고, 더 빠른 것’만을 추구하는 요즘 세대와는 거꾸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와 노래의 만남을 통해 삶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시노래 모임 ‘나팔꽃’ 동인들입니다. 시 같은 노래, 노래 같은 시를 쓰고 부르자는 사람들이죠. 만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들이 좋습니다.

시와 노래, 비로소 한 몸 되다 시노래 모임 ‘나팔꽃’은 지난 1999년 봄에 싹을 틔웠습니다. 시인 김용택, 정호승, 도종환, 안도현, 유종화, 그리고 음악인 백창우, 김원중, 배경희, 김현성, 홍순관, 류형선, 이지상, 안치환, 이수진 등이 모여 만들었지요. 이들은 시와 사람들이 멀어지고, ‘말이 안 되는’ 노래가 판치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옛날에는 시와 노래가 ‘한 몸’이었습니다. 시는 노래의 마음이고요, 노래는 시의 몸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따로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시도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노래도 깊이가 없어졌어요. ‘나팔꽃’은 시와 노래의 만남을 통해서, 시가 시집 밖으로 걸어나오게 하고, 노래에 깊이와 넓이를 더하려는 일종의 문화운동이죠.”

꾸준히 모임을 갖고 교류하던 시인과 음악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공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꽃’의 첫 공연은 모임이 만들어진 해의 9월에 열렸습니다. 당시 공연의 주제가 바로 ‘작게 낮게 느리게’였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 모임의 모토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후 ‘나팔꽃’은 시와 노래가 만나는 서정적인 공연을 200여 차례나 열었습니다. 정기 공연 외에도 ‘찾아가는 나팔꽃 콘서트’와 시노래 교실, 캠프 등으로 전국을 돌면서 시노래 운동 확산에 힘썼습니다. 화려하고 요란한 볼거리도, 이렇다할 홍보도 없는 소박한 무대였지만, 이들의 뜻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양희은, 장사익 같은 동료 가수들이 이들의 뜻에 공감해 기꺼이 함께 무대에 서곤 했습니다.

우정으로 빛나는 무대 하지만 남 모르는 고충도 많았습니다. 한 때 매달 열리기도 했던 ‘나팔꽃’의 정기공연은 2001년 15번째 무대 이후 2년 넘게 열리지 못했습니다. 마땅한 공연장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연자들이 대개 개런티 없이 무대에 서고, 때로는 자비를 털어 넣기도 할 정도로 ‘장사와는 거리가 먼’ 공연이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나팔꽃’의 열렬한 팬이며 우정출연도 마다하지 않던 연극배우 윤석화가 나섰습니다. 그는 “나팔꽃의 공연은 내 안에 맑은 샘물 같은 것이 있고, 따뜻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올해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로 소극장 ‘정미소’를 ‘나팔꽃’의 정기 공연장으로 선뜻 내줬습니다. 덕분에 ‘나팔꽃’은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의 정기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제가 '나팔꽃'을 만난 것은 바로 6월에 열렸던 여름 공연 때였습니다. '백창우 포크 콘서트 - 나는 나다'라는 제목으로 사흘 동안 열린 이 정기공연에서는 백창우, 김현성, 이수진, 김가영, 김원중, 그리고 어린이 노래모임 '굴렁쇠 아이들'의 김정한 등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정호승, 도종환, 정희성 시인도 출연해 자신의 시를 낭송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담한 어조로 들려줬습니다. 광고는 커녕 안내 포스터 한 장 붙이지 않은 공연이었지만, 200여 석의 소극장 객석에선 빈 자리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 격인 백창우는 '노래하는 음유시인'입니다. 그는 시집 네 권을 발간한 시인이며, 인기 대중가요를 여러 곡 썼을 뿐 아니라, 민중가요와 동요 작곡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등병의 편지>를 작곡한 가수 김현성은 이 콘서트에서 백창우가 1984년 작사 작곡하고 임희숙이 불러 유명해진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를 열창했습니다. 저는 그저 옛날 노래로만 생각했는데, 다시 들으며 가사를 곱씹어보니 여운이 남는, '시 같은 노래'였습니다.



“너를 보내는 들판엔 마른 바람이 슬프고
내가 돌아선 하늘엔 살빛 낮달이 슬퍼라
오래도록 잊었던 눈물이 솟고
등이 휜 것 같은 삶의 무게여
가거라 사람아 세월을 따라
모두가 걸어가는 쓸쓸한 그 길로“

깊은 울림으로 전하는 삶 속의 기쁨 정신없이 바쁘게만 돌아가는 세상, 좋은 시 한 편 읽어본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나팔꽃' 모임을 취재하고 콘서트를 본 것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였지만, 한편으로는 '제 눈을 맑게 하고 귀를 씻는' 계기도 됐습니다. 아침을 여는 꽃, 나팔꽃의 꽃말은 '기쁨'입니다. '나팔꽃' 모임은 '작고 낮고 느리지만' 깊은 울림으로, 현대인들이 잊고 사는 삶 속의 기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나팔꽃'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www.napal.co.kr을 치시면 됩니다.)

글 / 김수현_보도국 교육문화팀 기자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SBS 보도국 입사. 사회부, 전국부, 편집부, 문화과학부, 정치부를 두루 거친 후 현재는 사회부 교육문화팀 문화담당 기자이며 주 담당 분야는 공연. 좋은 공연,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기쁨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 이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는 향기로운 마음의 소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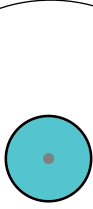
사상 최대의 불황이라는 요즘에도 날마다 새로운 음반들이 말 그대로 쏟아진다. 하지만 그 가운데 소위 ‘뜨는’ 음악은 가뭄에 콩나듯 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제작자들은 음반이 안 팔린다고 성화이고 듣는 사람들은 살 게 없다며 MP3의 바다에서 허우적댄다. 정말 듣고 간직하고픈 가요가 없는 것일까? 단호히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은PD,

‘80년대’의 동아기획을

추억하다





소녀, 음악을 위해 상경하다 어느 겨울이었나 보다. 대학의 여고생 은양은 대학순례를 빙자, 3학년을 앞둔 겨울방학에 무작정 상경을 감행한다. 서울 지리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손에 든 지하철 노선도 하나 뿐, 2호선을 타고 신촌으로 신림동으로... 서울을 한바퀴 돌았다. 그리고는 곧장 원래 목적지였던 광화문 레코드 거리로 발길을 돌린다.

광화문이라? 남대문은 알겠는데 광화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헤매고 헤매다 중고 LP들이 즐비한 레코드거리를 발견! 음악잡지를 통해 이미 낯익은 상호들을 비집고 은양은 '박지영 레코드'의 문을 연다. '동아패밀리카드'라는 일종의 할인카드를 들고 거기서 아마 두 장인가 음반을 산 것으로 기억된다. 20% 할인받았다고 어찌나 기뻐했는지, 행여 손상될까 걱정이 돼 고이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난다.

콘서트와 음반으로 팬과 만났던 사람들 이미 십수년전의 일을 이렇게 어렵게 떠올려 보는 건, 당시 가요계의 새 바람이 됐던 '동아기획'을 얘기하려 함이다. TV에는 조용필과 주현미가, 라디오에는 빌보드 차트 중심의 미국 팝이 성행하던 80년대, 음악까나 듣는다는 아이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언더그라운드 가수인 '들국화'나 '어떤날'이 소속된 기획사가 바로 동아기획이었다.

방송 출연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가수들이 팬들과 소통하는 채널은 콘서트와 음반이었다. 당시 FM의 몇몇 PD들은 음반을 직접 사서 방송했다고 한다. 동아패밀리카드를 만들어 각종 공연이나 음반 구입에 할인 혜택을 준 고객관리 마케팅 방식도 그 당시엔 획기적인 제도였다. 지금은 흔적도 없는 박지영 레코드는 동아기획이 운영하던 음반 가게였다.

80년대 중반부터 말 그대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참 좋은 음반을 많이 만들어낸 동아기획. 시작은 이리했다. 작곡학원을 운영하던 김영 사장은 몇몇 음반 제작에 참여했지만 시원치 않았다. 우연히 TV를 보다가 노래를 아주 잘하는 김현식을 알게 됐고, 김 사장은 〈사랑했어요〉가 담긴 '김현식 2집'을 제작한다.

기본적으로 음악을 좋아했던 김영 사장은 이어 작곡 동료였던 최성원으로부터 주변에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추천을 받았다. 바로 전인권이었다. 그래서 탄생한 팀이 일종의 프로젝트 형식이었던 '들국화'. 1985년 '들국화 1집'으로 본격적인 동아기획 시대가 열린다.

김현식, 들국화, 신촌블루스, 이정선, 시인과 촌장, 어떤날, 봄 여름 가을 겨울, 푸른하늘, 김현철, 장필순 등. 아마 지금 30대

이상이라면 음반 한 장 썬은 갖고 있을 80년대 비주류 음악의 중심에 바로 동아기획이 있었던 것이다(당시엔 이들이 비주류였다. 90년대를 지나면서 이들의 음악은 비로소 거대한 흐름을 형성한다).

동아기획의 미덕은 무엇보다 좋은 음악에 있다. 기획사와 소속 가수들은 음악 속에서 살았다. 가수들 사이에서 사장은 대장으로 불리웠으며, 기획사는 친구 같은, 가족 같은, 음악하기 편한 또래집단 그 자체였다. 트로트 혹은 발라드였던 당시의 가요 시장에 포크, 재즈, 블루스, 록 등 장르적 대안을 제시했던 것도 80년대 동아기획의 공적이다. 무명의 신인이지만 음악을 잘하는 뮤지션들을 영입하는데 적극적이었던 것도 당시로서는 모험이었다. 동아기획의 승부수는 오직 음악 뿐이었던 것이다.



음악의 경쟁력은 오로지 음악 뿐 100만 장의 신화는 사라진지 오래지만 아직도 노래가 좋은 음반들은 꾸준히 구매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철저히 음악 위주의, 거기에 상업성을 더해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획사는 외면 당하지 않는다.

몇 억을 들여 찍는 뮤직비디오보다 천편일률적인 멜로디와 편곡으로 이게 누구 음악인지 도무지 눈치도 챌 수 없는 음악들이 불황의 주범이 아닐지. 혼은 없고 기교만 살아있는 가수가 아닌, 댄스와 개인기 수양이 아닌, 새로운 시도와 불황 타개를 위한 접근이 필요한 거다.

80년대 상황과 지금을 단순비교 하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음악의 경쟁력은 바로 음악뿐인 것이다. 여기에 80년대의 동아기획을 추억하는 이유가 있다.

글 / 은지향 파워FM 〈이현우의 뮤직라이브〉PD

1995년 SBS 입사.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전문사 수료. 보통의 라디오 PD가 그러하듯 〈이광호의 문학산책〉〈손숙, 배기원의 아름다운 세상〉등 교양 프로그램과 〈전영혁의 음악여행〉〈이숙영의 파워FM〉등 음악 프로그램을 전천후로 담당했음. 지금은 파워FM 〈이현우의 뮤직라이브〉를 만들고 있는 자타공인 뮤직우먼.

이 땅 곳곳에 숨은 한적한 여름 피서지를 찾아서

다도해의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도 남해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섬이다. 섬 전체가 깨끗한 청정해역으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근사한 바닷가, 멋진 드라이브 코스, 한적한 포구, 그리고 흥미진진한 전설이 어린 여행자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육지와는 지난 1973년 6월에 완공된 남해대교와 연결되어 있다.

남해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남해대교에서 4km쯤 떨어진 곳에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해'가 자리잡고 있다. '이락사'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이순신 장군의 시신이 처음 안치되었던 유서 깊은 명소다.

이락사에서 벗어나 가로수 길을 따라 남해읍까지 간 뒤, 다시 자동차로 20분쯤 달리면 멋진 은빛 모래밭을 만나게 된다. 바로 상주 해수욕장이다. 2km 가량 반달처럼 휘어진 고운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이 한데 어우러져 멋진 조화를 이루고 파도 역시 잔잔해서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곳이다.

남해도의 남쪽 끄트머리에는 그 이름도 예쁜 미조항이 자리잡고 있다. 아침마다 해산물 경매가 열려 삶의 활력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다. 아울러 미조항은 남해안 일대에서 잡히는 멸치와 갈치의 집산지로 유명한데 이 곳의 갈치회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별미이기도 하다.

미조항을 벗어나 향도, 가인포 등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절로 탄성이 나올 정도로 멋진 절경들이 이어진다. 남해의 봄바다에 점점이 떠 있는 고기잡이 배와 바닷가에 터를 잡은 아기자기한 어촌 부락들이 여행자의 마음을 한층 푸근하고 평온하게 만든다. 한적한 해안도로는 마치 천국으로 향하는 꿈길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남해도를 대표하는 명산으로는 단연 금산(해발 681m)을 첫손에 꼽을 수 있다. 본래 이름은 보광산인데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 와서 백일기도를 하고 등극을 한 후 '금산(비단으로 두른 산)'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금산 곳곳에는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여러 사적과 아름다운 경치, 기암괴석들이 유난히 많다. 이들 대부분은 '금산 38경' 가운데 하나로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위)하늘에서 내려다 본 남해대교
아래)가족 단위의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상주 해수욕장

남해도 찾아가는 길

남해고속도로 하동 분기점에서 19번 국도를 이용해 남해도까지 가면 된다.



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꾸지나무골 해수욕장은 근처의 태안 사람들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다. 워낙 인적이 뜸한 태안반도 끄트머리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 가면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깨끗하고 한적한 해수욕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오염없는 청정지역, 미천골 자연휴양림 미천골은 자연휴양림으로 조성되기 이전부터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으로 그 명성이 자자하던 곳이다. 전혀 오염되지 않은 물줄기가 시원스럽게 계곡을 가득 채우고 곳곳에 드러난 기암괴석들은 빼어난 절경을 자랑한다. 계곡을 끼고 구불구불 이어지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곳곳에 쉼터와 야영장 등이 잘 마련되어 있으며 계곡 일부는 재래봉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미천골 자연휴양림 안내소(매표소)에서 3km쯤 계곡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빨간색 철다리가 나타나고 이 다리 건너편에는 제 1야영장이 자리잡고 있다. 이 곳에서 1.5km쯤 더 들어간 곳에는 제 2야영장이 있다. 두 야영장 주변에는 안전하게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야영 데크가 띄엄띄엄 마련되어 있으며 취사장과 조명등, 비상대피소, 주차장 등과 같은 시설물들이 야영객의 편의를 돕고 있다. 통나무집에서의 멋진 추억을 만들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매표소 근처에 11동, 매표소와 제 1야영장 사이에 4동, 제 1야영장과 제 2야영장 주변에 각각 2동의 산막(방갈로)이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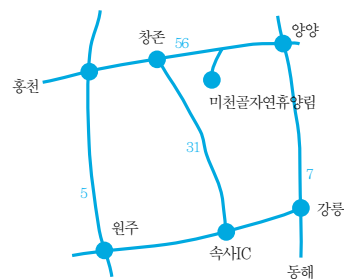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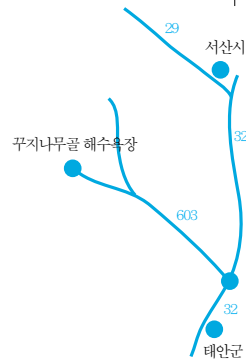
제 2야영장에서 1.5km쯤 더 들어가면 미천골정이 나타나고 이 곳에서 500m쯤 더 들어가면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미천골의 최상류 지역에 이르게 된다. 이 곳에는 '멍에정'이라 불리는 근사한 정자가 세워져 있으며 정자 하류쪽 계곡 건너편에서는 상직폭포가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불바라기 약수터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멋진 곳에 자리잡고 있는 약수터다. 멍에정에서 산길을 따라 4.8km쯤 걸어가면 미천골 가장 깊숙한 계곡에 꽤 규모가 큰 폭포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폭포 절벽의 중간쯤에 약수터가 매달려(?) 있다. 불바라기 약수터는 이처럼 힘들게 찾아온 사람들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물맛보다도 약수터를 직접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커다란 감동과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명물이다. 예전에는 물기 머금은 절벽을 어렵게 올라온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물맛을 허용했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지금은 원천에서 고무 호스를 연결해 폭포 아래에서도 물맛을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글과 사진 / 송일봉_여행작가

꾸지나무골 찾아가는 길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나들목에서 32번 국도를 이용해 서산을 거쳐 태안까지 간다. 태안에서는 603번 지방도로를 이용해 원북면과 이원면 소재지를 거쳐 꾸지나무골 해수욕장까지 가면 된다.



미천골 찾아가는 길

양양읍과 오색약수 사이에 있는 논화리에서 56번 국도를 이용해 구룡령쪽으로 20km쯤 가면 왼쪽에 미천골 자연휴양림 입구를 알리는 안내판이 나타난다.

미천골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재래봉 보호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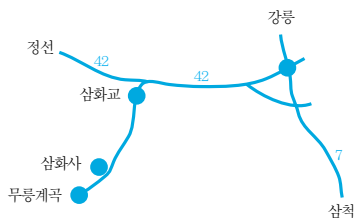




무릉계곡의 명물 가운데 하나인 학소대

무릉계곡 찾아가는 길

영동고속도로 강릉 분기점에서 동해고속도로를 타고 동해까지 간 다음 7번 국도와 42번 국도, 일반도로를 이용해 무릉계곡 입구까지 가면 된다.



울창한 숲에 싸여 있는 꾸지나무골 해수욕장

기암괴석과 깨끗한 물이 조화를 이루는 선경, 무릉계곡

무릉계곡은 강원도 동해시의 두타산(해발 1,362m)과 청옥산(해발 1,403m)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아름다운 계곡이다. 으레 높은 산에는 그에 걸맞는 깊은 계곡이 있는 법. 따라서 무릉계곡은 높은 산과 기암괴석, 깨끗한 물과 폭포, 그리고 오래된 나무들이 한데 어우러져 멋진 조화를 이루는 천혜의 비경지대이다.

약 14km에 이르는 긴 계곡에는 무릉반석을 비롯해 학소대, 낙타바위(베들바위), 선녀탕, 병풍바위, 쌍폭, 용추폭포 등과 같은 이름난 명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아울러 이 일대는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의 촬영지로 한때 많은 영화팬들의 관심을 모았던 곳이기도 하다.

무릉계곡의 들머리는 거대한 바위덩어리인 무릉반석이다. 무릉반석 옆으로는 두타산과 청옥산 깊은 계곡에서 발원하는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무릉계곡의 많은 명소 가운데 한여름 피서객들이 가족단위로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무릉반석에서 조그만 아치형 돌다리를 건너면 천년 고찰 삼화사가 나타난다. 옛 기록에 의하면 신라 선덕여왕 때인 640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하는데 일설에는 신라 경문왕 때인 864년에 범일국사가 창건했다고도 전한다. '삼화사'라는 사찰 이름은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하나로 통일시켜 달라"고 기도를 한데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삼화사에서 등산로를 따라 700m쯤 올라가면 또 하나의 '선경'이 눈앞을 가로 막는다. 이름하여 학소대. 마치 손으로 빚어놓은 듯한 미끈한 바위틈을 따라 굽은 물줄기가 4단의 폭포를 이루는 모습이 가히 절경이다. '학소대'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주왕산과 월악산 등에도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곳 두타산 무릉계곡의 학소대가 단연 첫 손에 꼽힌다.

태안반도의 숨겨진 명소, 꾸지나무골 태안반도에는 만리포 해수욕장을 비롯해 몽산포, 연포, 학암포, 신두리 등과 같은 많은 해수욕장들이 들쭉날쭉한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 늘어서 있다. 하지만 태안반도에는 이처럼 이름난 해수욕장들 말고도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숨겨진 명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꾸지나무골 해수욕장이다. 꾸지나무골은 태안군의 가장 북쪽 마을인 이원면에서도 북쪽으로 한참 더 올라간 곳에 자리잡고 있다.

태안읍에서 꾸지나무골까지는 약 25km. 버스는 물론 일반 자동차들의 통행량도 많지 않은 한적한 바닷가다.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울창한 송림을 따라 활처럼 휘어진 약 1km의 완만한 해안선은 훌륭한 천연 해수욕장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것은 다른 유명 해수욕장에 비해 아직까지는 한적하고 바닷물이 깨끗하다는 점이다.

야영을 하려는 피서객들을 위해 솔밭에는 60~70여 동의 텐

SBS 미디어넷은 케이블 채널인 SBS 골프채널, SBS 스포츠채널, SBS 드라마플러스의 통합명칭입니다.

편성표 및 하이라이트는 SBS PR 사이트(<http://sbspr.sbs.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SBS 골프채널

www.sbsgolf.com



**2004 LPGA BMO Financial Group
Canadian Women's Open 생중계**
7월 9일~12일 새벽 3시~5시 30분
(최종일 오전 5시~8시 30분)

지난 해 박지은 3위, 박세리 5위, 장정 6위, 강수연 11위 등 한국 선수들이 대거 상위에 입상했으나 아쉽게 우승컵을 뺏겼던 캐나다언우먼스오픈이 7월 두 번째 주에 포인트그레이 GC에서 개최된다.

총상금 130만 달러, 우승상금 19만 달러의 이 대회에는 올해도 상순세에 있는 한국 선수들이 대거 진출해 또 다시 우승컵 쟁탈전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잭시오배 클럽챔피언십(3회)

7월 14일 수요일 밤 11시

한국 최강의 아마추어를 가리는 잭시오배 클럽챔피언십이 회를 더할수록 인기를 얻고 있다. 이미 예선전을 치러 16강 시드를 받은 명문 클럽 챔피언들이 자신의 클럽의 명예를 걸고 치르는 대결이라 프로대회 못지않게 흥미진진하다.

3회 방송은 우정힐스 CC의 조태봉 씨와 남광주 CC의 박해진 선수의 16강전으로 실력과 나이 등에서 막강한 인물이 드문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SBS 스포츠채널

<http://sportsch.sbs.co.kr>



토토n조이

월요일 오후 9시

축구 열기가 더해가는 7월에 축구 마니아들을 흥분시키는 또 하나의 게임이 있다면 바로 스포츠 토토일 것이다. <토토n조이> 프로그램은 한 주 동안 펼쳐지는 축구 빅경기의 예상은 물론, 전문가들로부터 경기에 대한 관전 포인트까지 들어볼 수 있어 그야말로 마니아들이 한 번 더 즐길 수 있는 이색 게임이다.

특히 7월에는 2004 K리그 올스타전부터 아시안컵 8강전까지 빅매치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토토 게임은 더욱 흥미를 더한다.



2004 국가대표 친선경기 생중계

(한국: 튀니지)

7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아프리카의 강호 튀니지와 한국의 평가전으로 아시안컵을 앞두고 중동 지역 국가들을 대비하기 위한 경기다. 거센 사막의 모래폭풍을 태극 전사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막아내느냐가 이번 경기의 관건이다.

특히 이번 아시안컵부터 네덜란드 출신 신임 감독 요하네스 본프레레 감독이 국가대표팀을 이끌 예정이라, 이번 친선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게는 첫 인상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경기가 될 것이다.

SBS 드라마플러스

www.drama.sbs.co.kr



발리에서 생긴 일

(7월 8일 첫 방송)

본방송 / 화~금요일 오전 9시 40분

재방송 / 화~금요일 밤 10시 40분

환상의 섬 발리를 배경으로 하지원, 조인성, 박예진, 소지섭이 출연해 큰 화제가 되었던 <발리에서 생긴 일>이 시청자들을 다시 찾아온다.

약삭같지만 순수한 여자 수정(하지원), 나약한 영혼의 소유자 재민(조인성), 옛 사랑의 그림자를 잊지 못하는 여인 영주(박예진), 상처받은 남자 인욱(소지섭) 등, 이 드라마를 통해 물질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네 젊은이들의 인생을 엿볼 수 있다.



독바로 살아가

매주 화~금요일 저녁 8시 30분

<순풍산부인과>의 빅스타 박영규와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의 또 다른 스타 노주현을 내세운 대한민국 시트콤의 새 바람.

돈 많은 탤런트로 정형외과 병원의 소유자인 노주현과 그의 손아래 동서로 매일 주현의 발 마사지를 해주는 가난한 잔머리꾼 박영규. 두 사람이 벌이는 에피소드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이용경, 홍리나, 안재환, 최정윤, 서민정, 김홍수 등이 출연해 시트콤의 재미를 한층 더해준다.

채널 / SBS 스포츠채널

제작 / SBS비전 축구중계팀

연출 / 김영광 · 전대근 · 이우엽 · 정승관 · 엄재윤

방송 / 국가대표 친선경기 튀니지:한국(7월 7일 오후 7시, 생중계)

트리니다드 토바고:한국(7월 15일 오전 7시, 녹화중계)

아시안컵 축구 한국:요르단(7월 19일 오후 7시 30분, 생중계)

올림픽 한일 친선축구(7월 21일 오후 7시, 생중계)

아시안컵 축구 한국:UAE(7월 24일 낮 1시, 녹화중계)

아시안컵 축구 한국:쿠웨이트(7월 27일 오후 8시, 생중계)

2004년 여름, 아시아가 축구로 뜨거워진다!



절세 없이 이어지는 빅매치들 2002년 월드컵 이후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축구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다. 최근 유럽 대륙의 축구대전인 '유로 2004'로 인해 스포츠전문 채널은 물론이고 각종 언론에서 또 한 번 축구 열기가 넘쳐나고 있다.

이제 그 열기가 아시아로 넘어왔다. 바로 '2004 아시안컵' 축구가 7월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한국 대표팀은 새로운 사령탑을 영입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사기를 자랑하고 있고, 지난 월드컵에서의 4강 팀을 맞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을 이겨보기 위해 전의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16강전부터 만만치 않은 격전이 예상된다. 한국은 17일 요르단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23일 아랍에미레이트, 27일 쿠웨이트와 16강전을 펼친다.

이에 앞서 월드컵 대비 국가대표 친선 경기인 바레인(7월 10일)과 트리니다드 토바고(14일)와의 경기도 있으며, 올림픽 본 대회보다 더 큰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올림픽 친선 한일 전도 21일 열린다.

SBS 스포츠채널은 이 모든 경기를 중계할 예정이며, 그에 앞서 축구팬들을 위해 7월의 빅 매치들이 갖는 의미와 관전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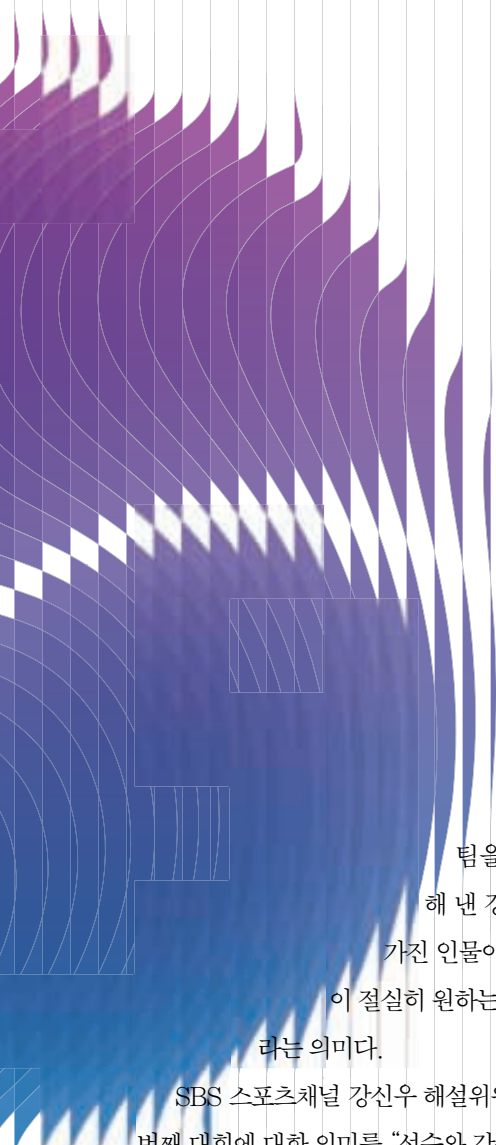
가장 큰 대회이자 축구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7월의 빅 이슈는 '2004 아시안컵'이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아시아인의

축구대전인 아시안컵은 올해는 레바논에서 열린다. 예선을 거쳐 한국 등 모두 16강이 선발됐으며, 한국은 신임 감독과 함께 아시아 강호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대회 우승을 노리고 있다.

본프레레 감독이 이끄는 새로운 '태극호' 한국은 이 대회 1회와 2회 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엔 대회에 대해 선수들이 큰 매력을 느끼지 않아 이렇다 할 성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이 대회 우승국에게는 컨페더레이션컵에 시드를 부여하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에게는 중요한 대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이 대회가 축구팬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새로 부임한 네덜란드 출신의 본프레레 감독이 맡은 첫 번째 대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이 아시안컵 16강에서 대적할 팀은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23일), 쿠웨이트(27일)로 모두 아랍권인데, 공교롭게도 본프레레 감독이 그동안 아프리카와 중동 팀을 맡아왔기 때문에 감독과 대표팀의 화음이 얼마나 조화를 이뤄낼지 기대가 크다.

본프레레 감독은 지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 나이지리아 팀을 이끌고 출전해 우승한 바 있고, 그동안 아프리카와 중동



팀을 맡아 어려운 환경을 극복
해 낸 강력한 카리스마와 추진력을
가진 인물이다. 이는 바로 한국 대표팀
이 절실히 원하는 '우리에게 잘 맞는 감독'이
라는 의미다.

SBS 스포츠채널 강신우 해설위원은 새로운 감독이 맞는 첫
번째 대회에 대한 의미를 "선수와 감독이 서로에게 잘 맞춰 최
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우승까지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결
국 목표는 월드컵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중동국가와의 친선경기는 선수와 감독의 평가전 이에 앞
서 국가대표는 7월 10일과 14일 광주와 서울에서 바레인과 트리
니다드 토바고에 맞서 친선경기를 가진다. 이는 아시안컵을 앞두고
중동지역 국가들을 대비하기 위한 평가전으로, 본프레레 감독
에게는 선수들을 파악하는 첫번째 대회가 될 것이다.

바레인은 중동의 강호이며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북중미의
강호로 두 팀 모두 우리 대표팀에게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 친선대회는 거센 사막의 모래폭풍을 태극 전사가 열
마나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지 경험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대표팀에게 의미있는 대회다.



대중교통을 마비시키는 한일 축구 친선경기 7월을 축구로
물들이는 또 다른 빅 이벤트는 21일 열리는 올림픽 한일 친선 축
구다. 지난 해 10월에 있었던 평가전에서 한국이 2대 1로 승리한
바 있어 일본은 지난 대회의 설욕을 이겨내기 위해 철저한 준비
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올림픽 예선전을 6전 전승이라는
과죽지세로 통과해 최고의 기량을 자랑한다.

우리로서는 일본에 맞서 조직력을 재점검하고 집중력을 키
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 대결은 다가오는 8월에 있을 아
테네 올림픽을 앞두고 자존심을 건 한 판 승부가 될 것이다.

세계는 한국을 쉽게 보지 않는다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한국 축구팬들은 대표팀에게 '생각하는 축
구'를 요구하고 있다. 상대는 이미 우리를 분석하고 나서기 때문
에 적절하게 우리 함정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전술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팬들의 축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식 또
한 한국 축구 수준을 한층 높이고 있다.

이제 아시아 축구무대는 유럽 축구 못지않게 활성화되고 규
모 또한 커지고 있으며 세계적 관심과 열광의 분위기를 얻고 있
다. 바로 이런 분위기가 7월의 축구 빅 경기들을 더욱 뜨겁게 달
군다. 뜨거운 열기에 못지 않은 좋은 성적으로 한층 세련되고 성
숙된 한국 축구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 / 조명수_SBS 미디어넷 · 자문 / 강신우_SBS 스포츠채널 해설위원

www.sbs.co.kr 소식

〈장길산〉, 포인트 배팅 게임



드라마 〈장길산〉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급 게임(드라마 홈페이지 내의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아이템을 적립하고 지급받은 정도에 따라 최하 노비에서 농민, 두령, 책사 등을 거쳐 최고 장길산까지 10단계의 계급을 획득하는 게임)의 노비신분을 위한 진급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계급 게임에서 노비 신분에서 머무르고 있는 네티즌들만 참가할 수 있으며 참여자가 단계별로 퀴즈를 풀고 누적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이며 각 단계의 진행여부는 선택할 수 있다. 참여 기회는 2번으로 제한하며 각 단계의 문제를 풀고 통과할 경우 자신의 포인트의 2배에서 최고 10배까지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고 답

이 틀릴 경우 자신이 건 포인트를 잃게 된다.

한편 인터넷 사이트(www.intizen)의 온라인 게임 '군주'에서 '장길산' 계급 게임의 캐릭터를 만날 경우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 포인트는 '장길산' 계급 게임의 포인트에 연동해 반영된다.

〈파리의 연인〉, '사랑, 추억, 그리고 파리젠느' 이벤트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파리의 연인〉 홈페이지에서 '사랑, 추억, 그리고 파리젠느'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사랑'이라는 테마로는 〈파리의 연인〉 옴므팜므 게시판에 공개 프로포즈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고백을 '프로포즈'라는 말머리를 붙여 게시판에 올리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자격을 해준다.

프로포즈의 글을 올린 네티즌 가운데 매주 1명의 사연을 담은 프로포즈 페이지를 제작해 〈파리의 연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물로 기주의 파리 집 촬영이 이루어진 호텔의 숙박권을 제공한다. 또 이쉽게 선정은 되지 못했지만 감동적인 사연을 올려준 사람에게는 2주마다 6명에게 영화관람권과 넥타이, 목걸이 등을 선물한다.

또 '추억'을 주제로 뿌띠뿌띠 게시판에 추억이 담긴 여행 사진이나 연인들의 다정한 사진 등을 사연과 함께 올린 사람에게는 2주마다 우수한 작품을 뽑아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준다.

한편 파리지앙 게시판에 게재한 글을 누적 집계해 파리젠느 10분에게 양복과 넥타이, 고급 목걸이 등 다양한 선물을 선사한다.



〈파리의 연인〉, 메모 한 장의 사랑이야기 공모

드라마 〈파리의 연인〉 홈페이지에서는 극중 여주인공 태영이 기주에게 메모 한 장 쓱을 남기는 것에서 착안해 회원들의 아이디어와 정성이 담긴 '메모 한 장'을 공모한다. SBS는 응모된 사연 가운데 매주 좋은 메모 한 장을 뽑아 드라마 홈페이지에 꾸준히 소개할 예정이다. 또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프로포즈 내용을 공모해 매주 한 명씩 홈페이지 메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여자플러스〉, 돌발퀴즈

SBS 교양 정보 프로그램 〈여자 플러스〉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매일 퀴즈를 출제하고 정답을 맞추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여자플러스〉 방송 후 170분간(11:10~14:00)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당일 방송과 관련한 퀴즈를 풀면 매일 두 사람을 뽑아 백화점 상품권과 화장품 등 다양한 경품을 선물로 제공한다.



박용하, 라디오 홈페이지 블로그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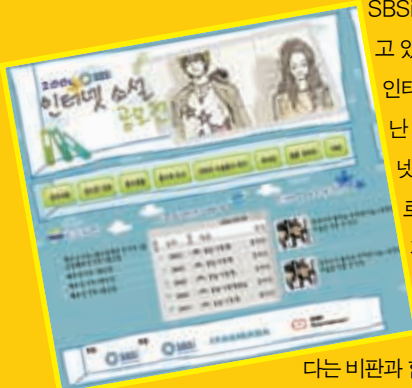
〈박용하의 텐텐클럽〉(107.7MHz)을 진행하고 있는 DJ 박용하는 라디오 홈페이지 블로그에 폭 빠져있다. 매일 방송 전후는 물론 집에서도 수시로 S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마련된 그만의 블로그 '용가리통뽀'에 직접 글과 사진을 남긴다. 자신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들, 친구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찍은 애완견 사진 등 박용하의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만날 수 있다.

또 박용하는 텐텐클럽 홈페이지에 '친한 친구 사이'를 뜻하는 '일촌사이'라는 제목의 라디오 게시판 만들어 놓고 그날 출연한 모든 게스트와 지인들에게 글과 사진을 남기고 가도록 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팬 관리에 한창이다.

이런 박용하의 노력 덕분에 〈박용하의 텐텐클럽〉홈페이지는 24시간 내내 박용하와 네티즌이 쉴새 없이 들락거리며 서로 글을 남기고 또 거기에 댓글을 다는 등 청취자와 DJ간의 끈끈한 애정이 오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과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서 〈겨울연가〉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외국인들까지 SBS 라디오 홈페이지를 방문해 박용하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2004 SBSi 인터넷 소설 공모전



SBSi(www.sbs.co.kr)는 최근 들어 새로운 대중문화의 한 축을 형성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소설 공모전을 7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4개월 동안 개최한다.

인터넷 소설은 그 특유의 사실적이고 발랄한 구성을 토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엄청난 파급효과에 힘입어 문화산업 전반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대표적 인터넷 소설인 〈그놈은 멋있었다〉의 경우 출판에서도 12만 부 이상이 팔렸고 현재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있다. 또 〈엽기적인 그녀〉와 〈동갑내기 과외하기〉, 〈내사랑 싸가지〉 등 인기 인터넷 소설이 잇따라 영화화되고 흥행에 성공하면서 인터넷 소설의 잠재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소설의 이러한 인기와 수요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정통성을 흐린다는 비판과 함께 신예 작가의 발굴이나 신작 발표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체계적인 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태다.

SBSi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인터넷 소설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모전은 로맨스, SF/판타지, 추리, 무협 등 장르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기성작가와 신인 모두 공모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예비 작가들은 SBS 홈페이지(www.sbs.co.kr)를 통해 응모가 가능하며 본심 대상작은 10주 이상 시리즈를 연재하고 완결한 작품이 10만 자 이상, 20만 바이트 이상의 분량을 충족해야 한다. 또 복수 응모도 가능하다.

심사결과 12월 20일 발표 예정이며 최우수 당선작 1명에게는 1,500만원의 상금을, 우수작과 가작 2명에게는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 네티즌들로부터 가장 많은 조회 및 추천 수를 기록한 작품을 매주 1편씩 뽑아 인기상을 시상한다.



디즈니탄생 100주년 기념공연

디즈니 아이스쇼

2004년 8월 펼쳐지는 꿈의 디즈니, 은반 위의 즐거운 축제!

얼음 위에서 동화가 춤춰요!

오리지널 출연진과 스태프가 빚어내는 은반 위의 디즈니랜드!
라이온 킹, 미녀와 야수, 토이스토리, 벅스 라이프, 물란 등
사랑스러운 디즈니 스타들이 총출동, 평생 기억될 무대를 선보입니다.

뮤지컬의 춤과 노래, 애니메이션의 재미와 감동, 피겨 스케이팅의 우아함과 시원함이
모두 담겨 있는 환상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4. 8.6(금) ~ 8.22(일)

17일간 총 32회 공연(월요일 공연 없음)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제1체육관)



■ 공연시간

- 화·수 1회 공연 19:30~21:30
- 목·금 2회 공연 15:30~17:30/19:30~21:30
- 토·일 3회 공연 11:00~13:00/15:00~17:00/19:00~21:00
(단, 토요일 11:00 공연은 영어 공연입니다.)

■ 주 최 : SBS

■ 주 관 : SBS 프로덕션

■ 후 원 : 서울특별시 The Walt Disney Company (Korea) Limited

■ 티켓가격 : VIP석 88,000원 /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 A석 33,000원

■ 티켓예매 : TicketLink www.ticketlink.co.kr 1588-7890

■ 공연문의 : SBS 프로덕션 02) 2113-6859

■ 홈페이지 : www.disneyonice.co.kr

우리 함께 해요, 신나는 여름방학!

727 멤버십 7월의 이벤트



7월 7일

- 727무비 월정액관 새단장 오픈

작년 5월부터 제공되고 있는 '727무비 월정액 서비스'가 새단장을 마치고, 7월 7일(예정)부터 다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해보다 더 많고, 더 좋은 영화를 보여드리면서 가격은 1만 5,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27멤버십 홈페이지에서 [727 무비](#)를 눌러 보세요.



7월 24일

- 줄리어드 음대 교수들과 함께 하는 '캐주얼 클래식'

목동 SBS 신사옥의 새로운 공간인 1층 아트리움에서 줄리어드 음대 현직 교수들이 직접 출연하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등 우리에게 친숙한 악기편성으로 귀에 익숙한 클래식 레퍼토리를 구성, SBS 신사옥의 청량감 있는 글라스 건축물과 잘 어울리는 싱그러운 여름날의 저녁 콘서트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04년 7월 24일(토) 오후 5시

장소 / SBS 아트리움 (SBS 목동 신사옥 1층)

참여 방식 / 727 홈페이지에서 7월 12일부터 온라인 접수 예정

- 본 공연은 녹화방송될 예정이며, 당첨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 본 공연은 SBS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7월의 무료 드라마

라이프가드의 활약상과 우정을 그린 청춘시트콤 <오렌지>
강렬한 태양과 넘실거리는 푸른 물결 속에서 일하는 라이프가드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젊은이들의 열정과 패기, 우정을 그리며 그 속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통해 감동과 웃음을 자아낸다.

SBS 창사특집 TV문학상 당선작 <여름이야기>

어느 해 여름 소년과 소녀를 불쑥 성장시킨 사랑 이야기. 먼 훗날 내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추억이 되는 사람, 조용히 미소짓게 만드는 어린 날의 사랑과 정서를 그린 드라마.

SBS Television Schedule

月	火	水	
AM 6:00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청혼 9:00 체험! 지구촌 홈스테이  9:30 김승현 ·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10 여자 플러스 11:30 시청자 제보 - 물은 생명이다 11:35 SBS TV 특강 PM 4:00 SBS 뉴스 4:10 오픈 스튜디오 4:50 세계 명작동화 5:00 그리스 로마 신화 올림포스 가디언 5:30 유희왕 6:00 SBS 뉴스퍼레이드 6:20 생방송 투데이 7:05 백만불 미스터리 8:00 SBS 8 뉴스 8:45 오늘의 스포츠 8:50 일일드라마 소풍가는 여자 9:20 일일시트콤 압구정 종갓집 9:55 대하드라마 장길산  11:05 야심만만! 만 명에게 물었습니다 AM 0:15 SBS 나이트라인 0:45 스포츠 와이드 0:55 SBS 골프	AM 6:00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청혼 9:00 체험! 지구촌 홈스테이 9:30 김승현 ·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10 여자 플러스 11:30 시청자 제보 - 물은 생명이다 11:35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PM 4:00 SBS 뉴스 4:10 오픈 스튜디오 4:50 세계 명작동화 5:00 그리스 로마 신화 올림포스 가디언 5:30 SBS 창작 3D 애니메이션 범퍼킹 재퍼 6:00 SBS 뉴스퍼레이드 6:20 생방송 투데이 7:05 외국인 대결전  8:00 SBS 8 뉴스 8:45 오늘의 스포츠 8:50 일일드라마 소풍가는 여자 9:20 일일시트콤 압구정 종갓집 9:55 대하드라마 장길산 11:05 김용만 신동엽의 즐겨찾기  AM 0:15 SBS 나이트라인 0:45 스포츠 와이드 0:55 SBS 스페셜	AM 6:00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청혼 9:00 체험! 지구촌 홈스테이 9:30 김승현 ·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10 여자 플러스 11:30 시청자 제보 - 물은 생명이다 11:35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PM 12:05 드라마 특선(자막해설 방송) 4:00 SBS 뉴스 4:10 오픈 스튜디오 4:50 세계 명작동화 5:00 아짱쥬리 5:30 포켓몬스터 AG 6:00 SBS 뉴스퍼레이드 6:20 생방송 투데이 7:05 해결! 돈이 보인다 8:00 SBS 8 뉴스 8:45 오늘의 스포츠 8:50 일일드라마 소풍가는 여자 9:20 일일시트콤 압구정 종갓집 9:55 드라마스페셜 섬마을 선생님  11:05 뉴스추적 AM 0:15 SBS 나이트라인 0:45 스포츠 와이드 0:55 SBS 스포츠 중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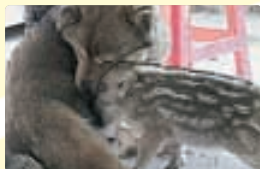
木

AM

- 6:00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청혼
9:00 체험! 지구촌 홈스테이
9:30 김승현 ·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10 여자 플러스
11:30 시청자 제보 - 물은 생명이야
11:35 TV 아름다운 가게

PM

- 4:00 SBS 뉴스
4:10 오픈 스튜디오
4:50 세계 명작동화
5:00 아짱쥬리
5:30 포켓몬스터 AG
6:00 SBS 뉴스퍼레이드
6:20 생방송 투데이
7:0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 8:00 SBS 8 뉴스
8:45 오늘의 스포츠
8:50 일일드라마 소풍가는 여자
9:20 일일시트콤 압구정 종갓집



- 9:55 드라마스페셜 삼마을 선생님
11:05 생방송 한밤의 TV연예

AM

- 0:15 SBS 나이트라인
0:45 스포츠 와이드
0:55 SBS 스포츠 중계석

金

AM

- 6:00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청혼
9:00 체험! 지구촌 홈스테이
9:30 김승현 ·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10 여자 플러스
11:30 시청자 제보 - 물은 생명이야
11:35 금요 컬처클럽



PM

- 4:00 SBS 뉴스
4:10 오픈 스튜디오
4:50 금요 만화특선 유니미닛
5:35 물은 생명이야
6:00 SBS 뉴스퍼레이드
6:20 생방송 투데이
7:05 진실게임
8:00 SBS 8 뉴스
8:45 오늘의 스포츠
8:50 일일드라마 소풍가는 여자
9:20 일일시트콤 압구정 종갓집
9:55 이경규의 굿타임



- 10:45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11:15 SBS 대토론 이것이 여론이다

AM

- 0:45 SBS 나이트라인
1:00 스포츠 와이드
1:05 시네클럽

土

AM

- 6:00 토요일집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청혼
9:00 잘먹고 잘사는 법



- 11:00 SBS 가요쇼

PM

- 12:00 SBS 뉴스
12:10 열린 TV 시청자 세상
1:10 재미있는 TV천국
1:50 스포츠 중계 및 재방송
3:50 시트콤 스페셜 압구정 종갓집
4:50 SBS 뉴스
5:00 학교전설
5:50 실제상황! 토요일
6:50 솔로몬의 선택
8:00 SBS 8 뉴스
8:35 오늘의 스포츠
8:45 주말극장 작은 아씨들



- 9:45 특별기획 파리의 연인
10:55 그것이 알고 싶다
11:5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AM

- 0:55 SBS 나이트라인
1:05 게임쇼! 즐거운 세상

日

AM

- 6:00 일요특집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50 SBS 시사진단



- 8:40 도전! 1000곡
9:40 TV 동물농장
10:50 결정! 맛 대 맛

PM

- 12:00 SBS 뉴스
12:10 집속! 무비월드
1:10 스포츠 중계 및 재방송
3:50 생방송 SBS 인기가요
4:50 SBS 뉴스
5:00 웃음을 찾는 사람들
6:00 일요일이 좋다
8:00 SBS 8 뉴스
8:35 오늘의 스포츠
8:45 주말극장 작은 아씨들
9:45 특별기획 파리의 연인



- 10:55 생방송 세븐데이즈
11:45 영화특급

AM

- 1:35 스포츠 빅 이벤트

*7월 1일 현재

Love FM

103.5MHz 792KHz

* 월~일요일 05:00~24:00 매시 정각에 뉴스

月~土

AM

- 5:05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6:05 정진홍의 SBS 전망대(1부)
7:00 아침 종합뉴스
7:10 정진홍의 SBS 전망대(2부)
8:00 SBS 뉴스레이더
8:30 손범규의 스포츠브리핑
8:50 주승균의 웰빙한방



- 9:05 손숙 · 김범수의 아름다운 세상
11:05 이봉원의 으랏차차 라디오

PM

- 12:00 낮 종합뉴스
12:20 배철수 · 전영미의 와와쇼
2:00 SBS 뉴스라인
2:20 DJ 처리와 함께 2시 탈출
4:05 오미희의 러브FM
6:00 저녁 종합뉴스
6:10 김홍국 · 박미선의 대한민국 특급쇼
8:00 SBS 8 뉴스(TV수중계)
8:30 김성환의 서울아리랑
10:05 유리상자의 뷰티플데이즈

AM

- 0:05 서민정의 기쁜우리 젊은날
2:00 김지연의 뮤직 토피아



- 4:00 김정일의 쿵쾅! 노래는 트로트

日

AM

- 5:05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6:05 이명천의 광고채널 1035
7:00 아침 종합뉴스
7:10 생방송 러브러브 선데이
9:05 손숙 · 김범수의 아름다운 세상
11:05 이봉원의 으랏차차 라디오

PM

- 12:00 낮 종합뉴스
12:10 배철수 · 전영미의 와와쇼



- 2:05 DJ 처리와 함께 2시 탈출
4:05 오미희의 러브FM
6:00 저녁 종합뉴스
6:10 김홍국 · 박미선의 대한민국 특급쇼
8:00 SBS 8 뉴스(TV수중계)
8:30 김성환의 서울아리랑



- 10:05 유리상자의 뷰티플데이즈

AM

- 0:05 서민정의 기쁜우리 젊은날



- 2:00 김지연의 뮤직 토피아
4:00 김정일의 쿵쾅! 노래는 트로트

Power FM

107.7MHz

月~日

AM

- 5:00 송영길의 트로트 하이웨이
6:00 이혜승의 모닝 익스프레스
7:00 이숙영의 파워 FM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11:00 윤현진의 러빙유

PM

-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 2:00 이현우의 뮤직라이브
4:00 허수경의 가요 풍경
6:00 박수현의 러브게임
8:00 장근석의 영 스트리트
10:00 박용하의 10!10! 클럽

AM

- 0:00 정지영의 스위트 뮤직박스
2:00 남궁연의 고릴라디오
3:00 이병희의 사운드 오브 뮤직



- 4:00 이현경의 예스터데이



배트맨과 로빈 Batman & Robin

감독 / 조엘 슈마허 주연 / 아널드 슈워제네거 · 조지 클루니 · 우마 서먼 담임PD / 배숙현 방송 / 7월 4일

베트맨 시리즈 4번째 작품. 120여분의 런닝 타임 내내 온갖 컴퓨터 그래픽과 특수효과에 의한 현란한 화면에, 각종 무기들과 액션신들로 눈돌릴 틈이 없다. 명석한 분자 생물학자였던 빅터 프라이스 박사(아널드 슈왈츠네거 분)는 병든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 극저온 냉동 실험을 하다가 그만 끔찍한 사고를 당해 괴상한 물골의 냉동 인간인 미스터 프리즈로 변한다. 그의 목표는 얼어붙은 아내를 살리기 위한 실험에 필요한 거액의 돈을 마련하고 고담시를 자신의 냉동 왕국으로 만드는 것. 미스터 프리즈의 야욕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배트맨(조지 클루니 분). 그의 곁에는 용감한 파트너 로빈(크리스 오도넬 분)이 있다. 그러나 미스터 프리즈 역시 파트너가 있다. 그는 바로 죽음의 키스로 무장한 아름다운 악녀 포이즌 아이비(우마 서먼 분)이다.



헌팅 The Haunting

감독 / 얀 드봉 주연 / 리암 니슨 · 캐서린 제타 존스 · 릴리 테일러 담임PD / 김하정 방송 / 7월 11일

셜리 잭슨의 공포소설 <The Haunting of the Hill House>가 원작. 다양한 특수 효과와 웅장한 세트가 불만한 작품으로, 특히 힐 하우스의 세트는 영화 역사상 최대로 기록될 만큼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세상과 격리돼 지내던 엘레노어(릴리 테일러 분)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갈 곳 없는 신세가 된다. 막막해하던 엘레노어는 힐 하우스라는 대 저택에서 1주일만 지내면 900달러를 준다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신문광고를 보고 거기에 응한다. 그렇게 해서 매로우 박사(리암 니슨 분)의 불면증 연구에 참가하게 된 엘레노어는 힐 하우스로 향한다. 엘레노어를 포함해 연구에 참여할 사람은 모두 셋. 타인 의존적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엘레노어, 자기도취가 심하며 성 정체성 상실을 보이는 테오(캐서린 제타 존스 분), 그리고 냉소적인 루크(오웬 윌슨 분)다.



하얀방

감독 / 임창재 주연 / 정준호 · 이은주 담임PD / 김 박 방송 / 7월 18일

코믹과 액션 장르에서 최고의 배우로 부상한 정준호, 멜로영화의 히로인 이은주, 두 최고의 배우가 공포물에 최초로 도전한 영화로 제작단계에서부터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1308호, 그곳에서 첫번째 죽음이 시작된다. 방송사 PD 한수진(이은주 분)은 취재사 만난 최형사(정준호 분)를 통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기이한 죽음과 그 사건의 단서인 '인터넷 사이트' 이야기를 듣고 최형사와 함께 미스터리한 현상의 실체를 밝히기 시작한다. 사건의 유일한 단서는 죽은 여자들이 모두 같은 사이트에 접속했었다는 것, 임신하지 않았는데도 모두 임신한 상태로 죽었다는 것. 이런 징후들을 자신에게서 발견한 수진은 죽음의 질박한 공포 속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1308호로 들어가기로 결심하는데... 죽음의 잉태되는 곳, 과연 하얀 방의 비밀은?



무서운 영화 Scary Movie

감독 / 키넨 아이보리 웨인스 주연 / 존 아브라함즈 · 안나 파리스 담임PD / 김하정 방송 / 7월 25일

<스크림>,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등 빅 히트 호러물들을 패러디한 엽기 코미디 영화. <매트릭스>나 <블레이드 워치> 등을 패러디한 장면들이 관객들을 배꼽잡게 한다. 이외에도 <식스 센스>, <유주얼 서스펙트>, <아메리칸 파이>, <타이타닉>, <아미스타>,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할로윈>, <13일의 금요일> 등을 패러디했다. 집에서 팝콘을 튀기던 미모의 여학생 드류에게 음산한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해서 공포영화를 좋아하냐는 기괴한 질문을 하고는 갑자기 집안에 나타나 그녀를 해치려 든다. 달아나던 드류는 숙곳바람으로 슈퍼모델인양 멋진 포즈를 취하기도 하지만 결국 칼에 찔리고 차에 치어 죽고 만다. 드류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친구 신디는 드류의 죽음에 어떤 의문이 숨어 있을까를 고민하다 문득 1년 전 사건을 떠올리는데...